朝鮮日報
夕刊 七日(土)
本紙朝夕刊十面

伊國反對不拘코 五國委員會設置

伊代表退席棄權以外엔 全會一致로遂可決

【쥬네브六日發聯合】第三日의 聯盟理事會公開會議는 六日午後五時四十五分(日本時間午前一時四十五分)開會를 宣하엿는데 出席이 念慮되던 伊太利首席代表 알로이지男도 代表部員을 帶同하고 自席에 着席하엿다

그러나 알로이지男은 에디오피아代表와 席을 함께하지안는다는 伊太利政府의 聲明에 따라 隨員을 다리고 席을 떠나서 退場하야 開會前에 벌서 理事會開會에 一波瀾을 보엿다

이리하야 開會를 宣하자 墨西哥代表고메스氏는 먼저 發言을 求하야 『墨西哥政府는 伊에紛爭의 平和的解決을 切望한다』는 旨를 主張한다음 게나스議長은 英佛伊其他各國의 折衝經過를 報告하고 英佛波土西 五個國委員으로된 五個國分科委員任命을 議場에 問하야 五個國委員會成立에 依하야 伊에紛爭의 和協的解決에 資할것을 切望한다는 言을 簡單히 述하야 即時 採決에 들어가 採決한 結果 伊太利代表가 棄權하는以外는 出席者全部가 贊成하야 問題만든 五個國委員會도 畢竟 無事成立을 보게되엿다

聯盟理事會 第三日經過

成立된和協委員會 委員長엔西國代表

委員國은英、佛、波、土、西諸國 伊太利側結局讓步

【쥬네브六日發】六日夜의聯盟理事會에서 新設된 伊에紛爭和協解決을 爲하야 英、佛、波、土、西五國委員會는 六日午後七時十分부터 聯盟事務局內의 압흐事務總長室에서 初會合을 開하고 西班牙代表마다리아가氏를 委員長으로 選擧하고 七日午前再開하기로 決定하엿다

【쥬네브六日發聯合】伊太利代表 알로이지男은 六日午後에 至하야 五個國委員會設置에 同意하고 또 英、佛兩國代表가 參加하여도 伊太利는 委員會參加를 主張하지안켓다는旨의 讓步를 한것은 理事會의 前途에 光明을 與한것이다 伊太利가 委員會設立에 同意한 條件으로 右委員會의 職能에 變化를 招來할과 如한것은 包含되지안헛다 伊太利代表及 聯盟事務局側의 諒解要旨는 如左하다

一、伊太利는 紛爭當事國이므로 委員會에 參加할것을 主張치 안는다

一、但 委員會를 聯盟規約第十五條의 規定에 基하야 任命한다는 主張을 撤回하고 別個의 基礎우에 서서任命할것

【쥬네브六日發聯合】聯盟理事會의 局面을 轉回하야 伊에紛爭의 停頓을 打開하는 唯一의 열쇠라고 보이는 五個國委員會의 事業이 압흐事務總長、이든、라발兩代表의 손으로 作成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六日午後에 至하여도 輪郭이 서지안허서 理事會第三日도 不得已 伊에紛爭을 正式議題로 上程하지안코 얼마동안 公開會議에서는 伊에紛爭에 關하지아니할 方針을 取할밧게 업다고 보이게되것은 各國代表를 憂慮케하고잇던바 伊太利代表는 드듸어 압흐事務總長의 要請을 容認하고 委員會에 贊成의 意를 表하야 形勢는 俄然 好轉하엿다 五個國委員은 英佛波土西의 五個國代表로 된것인데 伊太利가 畢竟 그 主張을 굽혀서 委員會參加를 讓步하게 된것은 注目된다

아도아戰雪辱次 伊에一戰은難免

英은不加擔, 但「에」國에準備猶豫를給與 伊에紛爭과英國態度

【倫敦六日發聯合】斷乎 制裁規定의 發動을 要求할는지 안홀는지 英國政府의 昨今의 對伊에紛爭의 態度에는 자못 鮮明을 缺한바잇다는 評判이 만흔데 다우닝街方面의 意向을 綜合하면 英國政府의 意見으로 大體 如左한 豫測을 내리고잇는 모양이다

一、英國은 今日의 境遇에 伊太利에 對하야 어떠한 精神的滿足을 與하야 적어도어떤 程度로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優越感을 滿足시키지안코는 伊太利의 態度緩和는 到底히바랄수업다고 생각한다 如何튼 伊太利는 面目上 에디오피아와 一戰을 交하야 아도와의 敗戰의 汚名을 雪辱치안코면 뭇솔리니首相으로서도 에디오피아의 諸交涉에 應하기는 不可能하다 따라서 英國으로서는 이 點에 잇서서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極力 伊太利軍과 事를 構하는 것을 猶豫하고 可及的 犧牲을 적게하는 以外에 取할 方策이 업다

一、但 英國으로서는 聯盟規約을 遵守하는態度上 伊太利가 에디오피아를 侵略할 境遇에는 垂手傍觀할수는업고 어떠한 制裁策을 取하지안홀수업다 但 制裁는 如何한意味에 잇서서도 英國이 戰爭에 參加하지안코 結局 伊太利로 向하는 兵器의 輸送禁止、에디오피아에의 武器輸出 許可等의 程度의 制裁以上은 實行不可能이다

一、特히 英國政府는 諸種의 軍事的考慮로부터 國內의 政治的實力도 考慮하지안흐면 안되다 이 點에서도 今日의 境遇에 國運을 堵하는 重大問題이다 따라서 聯盟規約의 嚴正堅持와 伊太利의 面目尊重의 雙方에 妥協하면서 徐徐히 事態의 方向轉換을 圖한 後 時期到來와함께 再次 平和促進運動에 進出하는것이 最上의 策이라고하겟다

朝鮮民情視察使로 德大寺侍從御差遣

【電通東京電話】朝鮮에서 始政二十五年紀念式典을 擧行하는데 對하야 德大寺侍從을 朝鮮에 御差遣하옵시기로되어 今日 如左히 宮內省으로부터 發表가 잇섯다

今般 朝鮮의 産業 文化와民情一般을 視察하실 고마우신 御軫念으로서 侍從德大寺實厚를 御差遣하옵시기로 되엇다 그리고 德大寺侍從은 來十八日頃 朝鮮에 渡來하야 約三週間의 豫定으로 朝鮮各地를 視察할터이다

侍從御差遣의 吩咐를拜하고 宇垣總督謹話

今日 拜受한 吩咐에 依하면 聖上陛下께압서는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週年의 成果가 顯著하심을 드르옵고 今般 産業、文化 及民情의 一般을 視察케하실 御意向으로서 侍從德大寺實厚公을 御差遣하신다는 吩咐를 恐懼하야 感激에 不禁하는바이다

今回 朝鮮統治史上 一劃期를 意味할 重要한 式典을 擧行함에 際하야 御聖旨를 拜奉하옵은 眞實로 至大한 光榮事이다 十月一日의 式典은 旣成功勞者의 慰藉祭 現存功勞者에의 感謝 永年勤續職員의 表彰等을 主要한 內容으로하고 總督府創設以來 統治上에 남긴여러先人의 功績을 頌하는趣旨로되엇는데 德大寺侍從께서는 朝鮮內各地方을 御巡察하신後 貴賓의資格으로서 此式典에 臨하시게될것이므로 內外多數紳士의 參列과 相俟하야 感激기픈 盛儀로 될것이다

英、에國治安維持 國際管理를提唱

國際警察隊는伊軍隊中心으로 伊國은同案을拒絕

(寫眞은 이든英代表)

【쥬네브六日發聯合】英國政府는 聯盟理事會의 進行과는 別個로 에디오피아國內의 治安維持의 國際共同管理를 提案하엿다 이具體案으로 國際警察隊의 常設을 提唱한 模樣이다 英國政府提案要旨는 如左하다

一、에디오피아의 內政을 整備하고 治安維持를 保障할 目的으로 國際警察隊를 常設할것

一、右國際警察隊는 伊太利軍隊를 中心으로 組織하고 英佛兩國軍隊와 他의 中立諸國軍隊도 이에 參加시키기로할것

右提案에 對하야 伊太利政府는 正面으로 拒否하고잇는 模樣이다 또 英、佛兩國의 提案인 에디오피아中部地帶의 廣汎한 領土租借에 對해서도 拒否의 態度를 取하고잇스므로 英、佛、伊三國間의 折衝은 現在로는 伊에關係의 停頓을 打開할 希望은 적다고 보인다

浙江財閥援助해 日本進出을阻止

蔣汪合作政權樹立日本期待에背馳! 抗日政策依然持續

【電通東京電話】陸軍中央部는 蔣介石、汪精衛合作權立後의 南京政府의 動向、特히 北中事態에 對하야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섯던바 最近 日本側의 期待에 反하야 北中事態는 依然히 排日的策謀를 潛行的으로 하고잇스므로 中央部로서도 重大한 警惕을 하지안흐면 안될다고 자못 緊張하고잇는데 最近 北中의 反滿反日의 策動으로 左의 諸點을 擧하고잇다

一、最近 蔣介石氏는 日中合辦으로 建設하려고 契約이 成立된 滄石鐵道의 敷設權을 日本으로부터 剝奪하라는 命令을 發하고잇는 事實이잇다

一、浙江財閥系의 中國、交通、中央各銀行의 北中支店을 政府가 援助하야 北中의經濟權을 掌握케하고 日本과의 經濟提携를 阻止할 策謀를 하고잇다

一、北中政務整理委員會의 廢止에 依하야 停戰協定、梅津何應欽協定의 交涉相對者를 업새고 北中外交權을 中央에 歸케하야 對日外交의 遷延、有耶無耶策을 企圖하고잇다

一、河北經濟協會는 蔣介石氏의 獨斷에 依하야 十日間의 日時로서 成立하라는 命令을밧고 잇는데 이協會는 北中各要人의勢力壓迫、日本과의 提携阻止를 爲하야 設立될것은 明瞭하다

一、黨部、藍衣社는 依然히 對日親和、對日經濟提携를 企圖하는 北中要人 商人의 身邊을 겨누고잇서서 日中間의 各種協定은 一片의 空文이되엇다

에國同等取扱의 和協試案엔不贊

委任統治權要求는如前히不變 伊太利態度依然强硬

【羅馬六日發聯合】聯盟理事會는 公開會議一段落으로 實質上 英佛伊三個國代表의 和協 工作에 入하엿는데 伊太利政府는 聯盟機構의 圈外에서 英佛伊 三國會商을 遂하야 紛爭의 根本的處理를 期하고잇다 即 和協工作에 關한 伊太利政府의 方針이라고 解釋되는바를 要約하면 如左하다

一、伊太利政府는 끗까지 行動의 自由를 留保하고 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할 希望을 버리지아니하엿스나 現在 쥬네브에서 英佛兩國 代表等의사이에서 非公式으로 討議되고잇는 和協方針에는 到底히 同意할수업다 英國政府試案의 中心은 一九○六年十二月 英、佛、伊三國政府間에 締結된 條約案을 變改하야 다시 에디오피아政府를 包含한 四個國條約을 締結함에 잇는데 如斯한 試案은 에디오피아國에 同等의 資格을 認定한것으로 伊太利政府는 反對치안흘수업다

一、伊太利政府는 委任統治領탄가니카에 對하야 完全한 統治의 確實에 努力하고잇는데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國에 對한 方針도 英國政府의 탄가니카에 對한方針과 同樣이다 따라서 伊太利政府의 立場을 諒解하기는 決코 困難치안흘것이다

一、從來 非公式으로 示唆되엇던 試案은 以上의 見地에서 全部拒否하엿는데 聯盟의 機構外에서 解決의 責任에 當하고잇는 英佛伊三個國代表가 意見을 一致하야 協議한다면 和協案이 成立될는지도 모른다

一、그意味에서 뭇솔리니首相、호어外相、라발首相이 스트레자會議의 決議에 基하야 會見하야 問題를 討議하는것을 希望하는바이다

聯盟破局에不關코 伊太利繼續動員!

【羅馬六日發聯合】聯盟의 破局도 모르는체 伊太利政府는 續續 國軍과 軍需品을 東阿植民地로 向하야 增派하야 에디오피아國境線上의 風雲은 急迫을 告하고잇는데 六日도 運送船二隻이 將校四十一名、兵員五百十名과 軍需品爆擊機를 滿載하고 나폴리를 出帆하야 맛사와로 向하얏다

事態好轉이라는 佛代表의樂觀論

【電通쥬네브六日發】六日朝 압흐事務總長과의 會談에 繼續하야 라발佛代表는 午後零時四十分 再次 要談을 續行하기爲하야 事務總長室에 가던바 그때 合同通信社의記者에게對하야 『지금 事態는 好轉되고잇다 나는 近近 再次 알로이지伊代表와 解決方策을 決定할 目的으로써 會見하고 懇談을거듭하게 될것이다』라고 자못 樂觀的見解를 漏洩하엿다

米獨國書捧呈式

【南京六日發聯合】中國駐箚米國初代大使존손氏及 獨逸大使트라우트만氏의 信任狀捧呈式은 九月十七日로 正式決定하엿다

五國委員會의 最後的和協工作

巴里會商當時의和協試案再提出? 무首相態度緩和

和協五國委員會 七日午前에開會

【電通쥬네브六日發】聯盟理事會 게나스議長은 五國委員會委員長 마다리아가氏와 協議한 結果 七日 午前十時半(日本時間七日午後六時半)부터 五國委員會를 開催하기로 되엇다

【쥬네브六日發聯合】破局이 念慮되던 理事會의情勢도 最後의 瞬間에 뭇솔리니 首相의 讓步로 五人委員會의 組織에 同意한結果 形式的으로는 五人委員會에서 또實質的으로는 英、佛、伊三國代表間의 私的折衝으로 最後의 和協工作을 進行하기로되엇다 委員會의 議事方針은 아직 決定되지안헛스나 一部 理事國은 當然 戰爭回避策을 取할것이라는 意向을 漏洩하고잇다 如何든 五人委員會는 第一段으로

一、紛爭을 全面的으로 檢討하야 和協手續을 進行할것

一、必要에 應하야 交涉中에는 實力에 訴하지안토록 兩當事國에 要請하게될것이다 그러나 和協工作이 失敗에 歸하면 委員會는 드듸어 戰爭의 危險이 現實로 存在하는것을 理事會에 報告하야 危險緩和乃至 處置에 關한 具體案을 勸告할 順序인 模樣이다

以上 委員會의 工作과는 別個로 乃至 同時에 佛國代表라발首相、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은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을 相對로 和協工作에 進出할터이므로 平和나 戰爭이나의 열쇠는 三國代表의 掌中에 쥐어잇다 英佛兩國代表는 巴里會商當時의 和協試案을 再提出하고 伊太利代表의 審議를 要請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는데 그後 뭇솔리니首相도 多少 態度를 緩和하야 正面으로 右試案을 拒否하지안코 右案이 審議의 出發點이 된다면 試案檢討에 應해도 조타는 言質을 與하엿다고도 信憑할 理由가잇서서 結局 前後一個月間紛糾를 거듭하엿스나 再次 巴里會商當時에 還歸하야 和協試案을 再吟味하게될것이다

에國代表出席하는限 伊는理事會에不出席

【電通쥬네브六日發】알로이지伊代表는 理事會議長 루이스게나스氏에게 對하야 伊太利代表部는 理事會에 에디오피아代表가 出席하는限 出席을 拒否하겟다는 旨를 通告하엿다라고 發表하엿다

리퇴니아內閣 總辭職

【코브노、리퇴니아六日發聯合】리퇴니아의 츠베리스內閣은 六日 總辭職을 斷行하엿는데 츠베리스首相은 再組閣의 大命을 밧고 卽時 再組閣에 着手하야 內相에 카브리키스將軍、農相에 브르윈스키氏가 新任한外 全部 留任하엿다

英公使館保護部隊 極秘裡에進軍

【아디스아베바六日發聯合】開戰切迫과함께 英國政府는 아디스아베바 駐箚 英國公使館의 保護에 任하기爲하야 保護部隊를 派遣하기로 決定하고 右部隊는 四日夕刻 極秘裡에 아디스아베바를 떠난 數킬로의 地點에到達하엿다 但 에디오피아政府는 市民의 感情을 刺戟할것을 憂慮하야 밤중에 가마히 아디스아베바에 入市하야 公使館에 들어가도록 要請하엿다

人事·集會

▲渡邊學務局長 平南北視察中九日朝歸京

▲上內彥策氏(總督府保安課長)九日午前八時 京城驛發平南北에 出張

八面鋒

◇ 食卓에서 떠러지는 땅쪼각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乞人의 充腸거리가 되는일도업지 안타.

◇ 只今의 英佛米는 이따위利益밧게는 他國에 讓步하는일이 업다.

◇ 日獨伊三國이 植民地問題로바등바등함은 英佛米의 慾心때문이오.

◇ 宇內의 植民地를 再分割하야 日獨伊의 조바심을 막는것이 世界平和를 確保할方法이라고 米國의「하우스」大佐가 거침업시 意見을發表.

◇ 말이야 되고안되고間에, 찌고 까부르고 잘들 노는팔이로구나.

光云商會라듸오部 開設五週年記念原價奉仕

日期 自九月十日 至九月卄日

라듸오界의霸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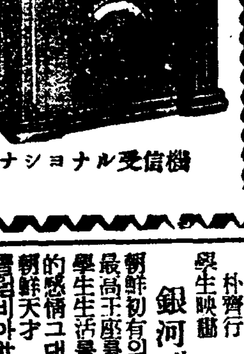
弊店은五年前의 京秋여러분의부르시는소래와함께『라듸오部』를 開設하엿슴니다 그後多幸이 도여 러분의마은 愛護와 指導를바다 今日이잇슴을 보게되엿슴으로 感謝하는바이올시다 이때에잇서서 여러분의厚恩의萬分之一이라도 갑호고자 五週年記念『라듸오原價奉仕會』를열게되엿사오니 만이利用하야 주심을바람니다 今日의 라듸오는 決코奢侈品이아니고 家庭必需品인것을 알게될때 東洋第一優良한 商品ナショナル라듸오를 原價로 여러분께드린다면이지 意味깁흔일이 아니리요

特히 價格을여기에記載하야 여러분이이것이 確實한 原價임을 알아주섯스면 더욱조흘것이오나 紙上에다 原價發表는 同業者間의感情問題도잇는故로여기에 發表를避하오니 未安하오나 來駕하시와이 놀납만한 事實을알아주시면 얼마나이 擧事에光榮이잇슬지모르겟슴니다

試聽歡迎 (但一種만이고 三十臺뿐임니다)

四大特典
一、架設無料
一、放送局申込代行
一、一年半保證
一、價格原價

光云商會本店 京城蓬萊町一丁目一二八 電話本局三〇六五 振替京城一二一四番
光云商會鍾路支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二七 電話光化門一〇七七番


ナショナル受信機

OKEH
오늘에流行하는 新民謠 압강물흘러〱 獨唱 李銀波 오케-레코-드(一七九六番)

頭痛에苦悶보다 はれやか(하레야가)로서微笑 ·30 ·50 1·00

第一劇場
九月七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晝夜三回 十二時 三時 半八時
特選大作品鑑賞週間
◇新興키네마太秦大作品 時代劇 くらやみの河岸 全十一卷
壽壽賀多 呂丸平監督 鈴木澄子阪東關太郞主演
亨保十三年夏節突然히怪異한美人의死體가流下하엿섯다! 그의凄慘한죽엄! 犯人은누구일가?劍劇의大亂鬪時代劇!!
파라마운트社超特作金發弊日本版 探偵活劇 新世紀 全十卷
찰스빅포드氏、쥬데이스아렌孃 大都市를橫行하는갱그團을逮捕하려고判檢事의活躍이야말로重且大하엿다! 果然驚異할만한大名篇!!
大衆料金 椅子席 二十五錢 階上席 十五錢 階下席 十錢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二七三三番

朝鮮劇場
九月七日부터 每日三回興行 午正十二時 午後三時半 午後八時
金剛키네마第六回大作品巨擘版 封切週間
原作脚色監督 安鍾和 撮影 李明雨
主演 李源鎔 申一仙 朴慶子
助演 薛光影 金寅圭 柳新花 李慶 朴齊行 全順子 李銀
學生映畫 銀河에흐르는情熱
朝鮮初有의學生映畫로映畫史上에 最高王座를占據한帝王篇! 學生生活를超現代化한感覺과銳角的感情그대로描寫한名篇! 朝鮮天才 올스타總網羅
콜럼비아社超特日本版 主演 사리、아이라스 가니-발
仁寺洞 電光三六一

NEOTONE TONIC

海州肺病療養院에서도 네오톤 토닉을使用한다

海州救世療養院은 朝鮮에唯一한理想的 肺結核療養院으로 創立以來十有餘年에 許多한患者를治療하엿다。

그러면 救世療養院에서는 어떠한 藥을使用하는가? 數多한 良藥을使用하는中 弊行直輸入의歐米各國에 高名한治療劑를 多數選擇 愛用하며 特히補肺。神經强壯。食慾亢進의目的으로 네오톤 토닉을 代表的으로 使用한다。此藥은現代醫學原理에 符合되는高貴原料를配合하야 調製된名藥으로 葡萄酒와恰似한佳味藥인데 過去數十年歐米各國에서 代表的補藥으로 使用하야其名聲이 滿天下에普及된藥劑입니다。

此藥에對하야 仔細한것은 貴地醫師에게 問議하시오。

「包裝」 一폰도(一個月分) 半깔론(四個月分) 一깔론(八個月分)

네오톤 토닉 輸入發賣元 柳韓洋行
京城西大門町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院路
臺北榮町四ノ二九

一事兩訴에暴露된 怪常한稧稧表裏

稧員稧金請求訴訟엔利益업다고拒絶

共同經營者는五萬圓配當請求

동계(稧桶)가 만긔되여 계원들이 계금을 분배해 달라하여도 계재산이 부족하다하야 반액밧게 주지안켓다하므로 의정부(議政府)사는 리남형(李南衡)외 네명은 그들이 가입하여잇는 시내 교남동(橋南洞)공성사계(共成社稧)계장 리원우(李元雨)씨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 계금반환금청구의 소송을 이르켜서 원고가승소하고 피고의 공소로 방금 경성복심법원에서 계속소송중인데 계장리원우의 항변(抗辯)과는 아주정반대로 그계의 경영자의 한사람인 시내 수표정(水標町)이십일번지 죽은 김경한(金璟漢)의 장자 김용식(金容植)은 그계의 가튼경영자인 리원우(李元雨) 공규원(孔圭元) 량명을 상대로 수일전에경성지방법원에 청산분배금(淸算分配金)오만원청구의 소송을 이르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분배해 주기전에 계경영자인 자기에게 리익금을 먼저 분배해달라는 의미의 재판이 버려젓다 그리하야 이재판의 결과는 다수의 계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하게 되엿다

◇

소장에 나타난 원고 김용식의 주장한바를 보면 원고의 죽은 아버지 김경한(金璟漢)은 피고두명과 함께 공성사계를 조직하야 그게를 갑을(甲乙)이조로 논하서 갑조는 대정십사년 팔월에 을조는 대정십삼년십이월에 각기 경찰서의 인가(認可)를 어더가지고 경영해왓든데 갑조는 소화팔년구월에 을조는 소화팔년십이월에 각기 존립기간(存立期間)이 만긔 되엿는바 그동안에 계원도 만히 가입하고 계의 성적도 조하서 리익이 무척만핫다한다 그런데 그계의경영자의 한사람인 원고의아버지 김경한은 소화팔년 이월십사일에 사망하엿스므로 그게(稧)에서 탈퇴되게되는동시에 그게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원고가 가지게 되엿는데 그사망당시에 그계의 총재산을 대강계산해보아도 이십사만이천십일원삼십사전이나 되는데 그가운데서 계원들에게 돌려줄것으로 삽분지일을 계산하여주기로 계산하면 잔액 십오만원은 순리익으로 남는 터인즉 그십오만원에 대한 삼분지일을 내라고 청구하여도 피고량명은 끗끗내 의무를 리행치 안흐므로 이에 소송을 이르키게 되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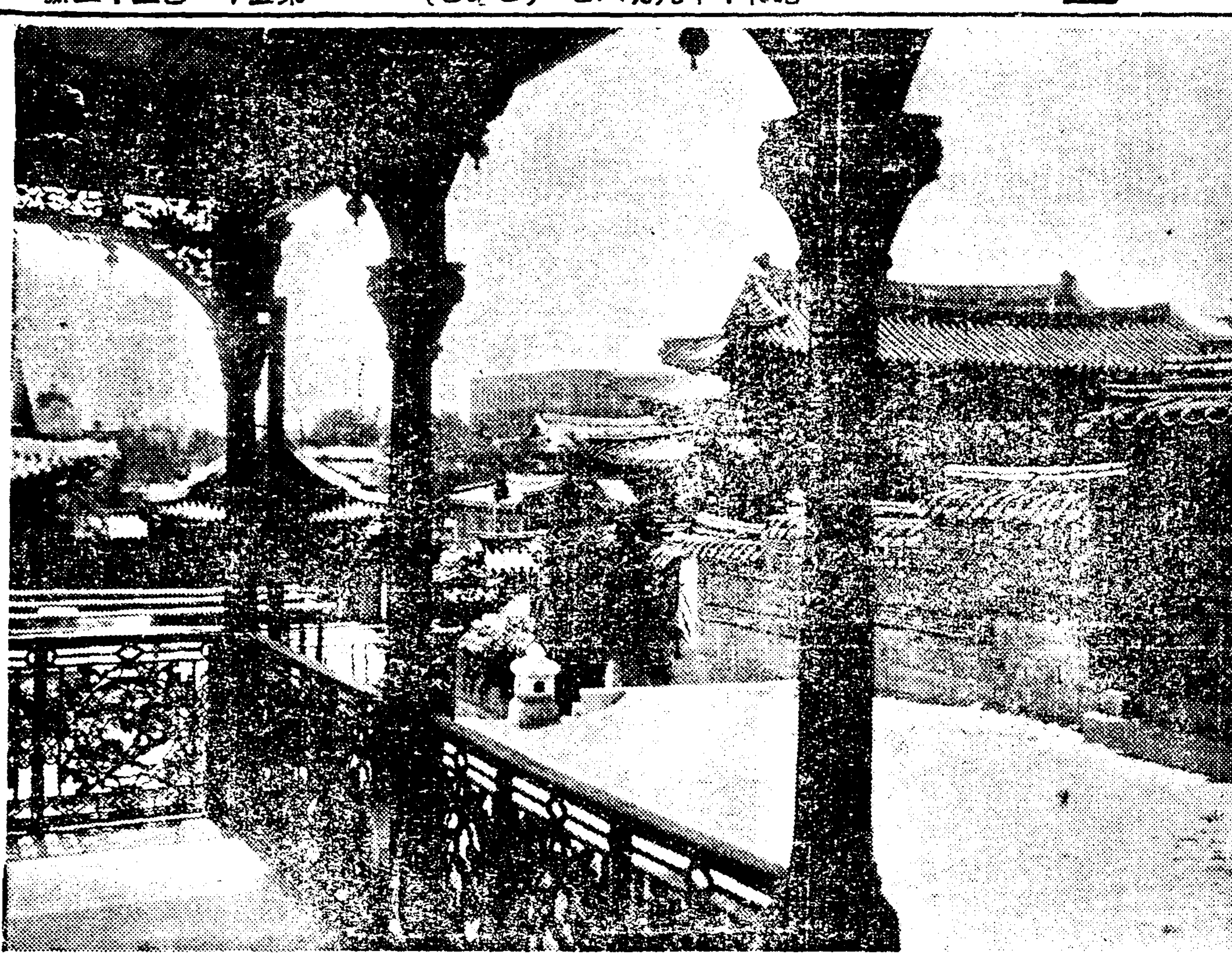
◇

이재판의 귀결여하는 다수의 계원들에게 만흔 리해관계가 잇는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므로 자못 주목되는바이다

總財産廿四萬圓 稧金不拂이怪異

經營者間配當訴訟確定따라 總稧員에影響至大

소장에 긔재된 공성사게의 재산목록을보면 공성사 을조에는 경기도 진위(振威) 양주(楊州) 고양(高陽)등지에 잇는 토지와 시내에 잇는 가옥(세노흔집)을 합하야 칠만일백칠십일원오십전의 재산과 륙십륙명에게 대부하야 아즉 회수하지못하고 잇는 채권 일만구천칠백이십사원 과를 합하면 총게 팔만구천팔백구십오원오십전의 재산이 잇고 공성사 갑조에는 경기도파주(坡州)에 잇는 칠천오원가차의 토지와 이십오명에게 대부하여잇는 채권 일만사천팔백이십삼원을 합계하면 십팔만륙천팔백구십일원삼십사전의 재산이 잇다한다 그러고 공성사 갑을 량조의 소유토지에서 바더드린 소작료와 세노흔집에서 바더드린집세와 꾸어준돈에 대한 리자를 합계하면 소화륙년으로부터 소화구년까지 사년동안에 일만삼천칠백팔십원이나 된다한다 그런데 이상의 재산평가와게산이 정확하다면 그게(稧)경영자와 계원들사이에 해결되지못하고 잇는 계금반환문제는 다수계원들에게 아주 유리하게해결될수 잇는것이오 만약 그러치 안타면 문서상으로만 십오만원의 순리익이 잇다하야 게경영자 자기네들끼리 미리분배해버리고 실제재산은 도로혀부족하게되여 일반계원들은 비록 계금반환청구의 소송으로 승소(勝訴)한다드라도 돈을 차저먹을 도리가업게될것으로관측된다



淸澄한大氣속에 古宮의秋色 [illegible]

運動競技欄

昨年覇者二高를壓倒코 徽文軍斷然優勢

全朝鮮水上競技第二日

朝鮮體育會 朝鮮水上競技協會共同主催의 第六回 全朝鮮水上競技大會 第二日은 寂凉한 스포ー츠날씨에 祝福바더 七日午後二時부터 京城풀에서 열리엇다 前日의 豫選에서 非常한 激戰을演出한끄테 決勝에 남은 各校選手들의 衝天하는 意氣는 場內를 威壓하야 母校應援團들의 熱烈한 聲援속에서 決勝의 幕이열린바 劈頭二百米 混合繼泳에徽文高普는 昨年의 覇者第二高普를 壓倒하고 斷然優勢를보이고잇다 (當日夕刊마감까지 戰績은다음과가갓다) (當日氣溫二一度、水溫二六度)

◇中學部決勝

【二百米混合繼泳決勝】▲1徽文高普(秋成求、李明燮、金花玉) 四分二一秒一 (同大會新記錄) ▲2第二高普(吳振榮、李俊雨、李友喆) 四分三七秒 ▲3普成高普(金秉榮、李昌淸、姜錫麟) ▲4第一高普 ▲5養正高普

【中等四百米自由型決勝】1李鋼明(徽文)六分三七秒四 2朴性用(徽文)六分四九秒三 3李友喆(二高)六分五五秒五 4李昌圭(二高) 5李泳昌(一高) 6李丙斗(一高)

【中等二百米背泳決勝】1秋成求(徽文)三分一〇秒二 2吳振榮(二高)三分二三秒一 3李斌淳(徽文)三分二八秒八 4金行水(仁商) 5鄭鎬達(一高)

◇一般部

【一般部四百米平泳豫選】▲A組 1廉貞鎭(京城)六分三六秒 (同大會新記錄) 2崔喜武(京城)七分四六秒 3金相鎭(養正俱)八分一七秒五 ▲B組 1金永燮(鎭南浦)六分五五秒六 2崔栽豫(開城)七分一四秒 3池石根(養正俱)八分一六秒

開城對海州의 陸上對抗

明八日開城에서

【開城】海州體育會와 開城高麗體育會共同主催의 全海州陸上軍對全開城對抗陸上競技大會는 八日午前十時부터 開城府公設運動場에서 開催할터인데 兩軍은 目下猛練習을 거듭하고잇서 戰前부터 興味를이끌고잇든바 出戰할 兩軍의 選手는 五十餘名에達하야잇스며 當日競技種目은 트랙九種目 필드六種目 合計十五種目으로 地方對抗競技大會에잇서 大規模인만큼 當日의 盛況을 豫期케한다

◇競技種目=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一千五百米 五千米 一萬米 八百米繼走 瑞典繼走 投砲丸 走幅跳 走高跳 棒高跳 投圓盤 投槍

新種目及릴레 陸上競技大會

來月五日에開催

京城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回新種目陸上競技大會는 來十月五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個人競技는 三百米 五百米 千米 三千米 三千米競步、兩手投砲丸(十六封度)及兩手投圓盤等의 各種目을擧行하고 團體競技繼走는 中等學校部(十種目)、一般部(三種目)、專門大學部(三種目)의 三部에나노아 行하기로 되엿다 中體은 個人競技 一人二種目、『릴레』는 中等部 各學年으로부터 一팀七名을 連記하야 申込하되 四名만이出場하고 一般部는 各所屬團體로부터 一팀式出場하기로되엿다 申込期日은 九月二十五日까지이며 龍山鐵道局經理課內 眞田勤氏에게 申込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信任밧든머슴이 農牛끌고逃亡

【永登浦】시흥군동면시흥리(始興郡東面新林里) 구장 장화배(張學培)씨는 약 일주일전에 본적주소가 불명한 김배은(金得恩)이란 가명(假名)의 머슴을 두엇든바 사람이 퍽근실할뿐안이라 긔운이세여서 드려오든날부터 안과 밧갓일을 제일가티 열성으로ㅣ 아옹으로 집안사람들은 그를신임하야 모든일을 밀어맛겨버렷섯는데 전긔김은 머슴사리 드러온지 나흘재되는 지난이일아침에 조반을먹은후 시가이백원짜리소를몰고 지게를진후끌을또 기려나가는체하고 어대로인지 종적을 감추어버렷슴으로해 가지도록 기다리든 주인집에서는 그제야 도망한줄을 알고즉시소관 영등포 경찰서에 계출하는동시에백방으로 범인의 행방을 수사하는중이라고한다

第二次土幕毁撤

今番도新堂里二十餘戶土幕 移轉費辨出코落着

일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고등계에는 시외 신당리(新堂里)이백오십일번지 최종환(崔鍾煥)외 십이명의 명의로 탄원서 한창이 들어왓는데 이에의하면 시외 신당리 이백오십일번지 소화공과학교(昭和工科學校)소유지에다가 약삼년전부터 움집을 짓고 살어오든 토막민(土幕民)삼십여호의 일백륙십여명 주민에게 그지주인 학교측에서 약십일전에 퇴지를 발하야 동교운동장공사를 시작하겟슨즉 륙일까지에 일제히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해왓스나 적수공권의 빈민으로서 그대로 거리에 방황할수밧게업슨즉 어떠케 잘 조처 하여 달라는 비창한 사실이엇섯다 동서 청야(淸野)고등계주임은 쌍방의사정을 엄밀히고려한결과 학교측재정이 곤란한중이나마 신당리주재소 신곡(神谷)부장의 에의하야 매호마다 일금삼원이전비용를 어더주기로하고 표면에나타난 아모분쟁도업시 무사해결짓고 말엇다한다

二百戶土幕도 半以上撤去

沙斤里新基地로

시외 신당리(新堂里)이백오십일번지 도시경영주식회사(都市經營株式會社)소유지의 토막민 이백호의 철거문제는 그동안 지주측과 주민사이에 상당한승강이 계속되여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고등계에서는 사건의 성질상 그추이를 극히 주목경계하여 주민측의 선동자라고 지목되는 김민영(金敏泳) 홍원석(洪元錫)의 두명을 검거류치하는 한편에 사건의원만해결을 기하야 특히 신당리주재소 신곡(神谷)부장이 쌍방의사이에서 그타협을알선하야 드듸여 시외사근리(沙斤里)에 한호에 가옥건축긔지열평과 전세든토막민에게는 다섯평의 토지를 주기로하고 칠일에는 발서 백십여호나 사근리새집터를 닥그러나갓다는데 남어지토막민의 철거로 불원해결되리라하며 동시에 피검된 전긔두명도 무사석방되리라한다

府民의八月中肉量

경성부민이 지난팔월동안에 먹은육식은 소가 이천마흔일곱마리에 이십만일천삼백륙십삼원어치오 도야지가 일천사백예순아홉마리에 이만칠천사백륙십륙원어치 양 두마리에 십사원 합계 삼천오백사십삼마리에 이십만 이백삼원어치라고한다 이것을 작년동기에 비교하면 소 삼백륙십일마리 도야지 이백아흔아홉마리를 더먹엇다 그만치경성부민의 위장이 커진세음이다

壽松公普同窓會 시내 수송공립보통학교(壽松公普)에서는 금칠일(토요)오후네시부터 남자동창회를 모교강당에서 열터인데 회비는이십전이오 다수참석을바란다고

二十三名刺身鬼

東大門署서一網捕盡

최근 경긔도경찰부에서 아편밀매자와 무등록아편흡연자를 전조선적으로 검거하라함과 시내종로서(鍾路署)에서 아편기생을검거취조한다함은 기보와 갓거니와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도 륙일밤에 관내일제를 수색하야 무등록아편흡연자 이십삼명의 가택을 습격하야 효제동(孝悌洞) 대금업자 김윤대(金允大)(五一)=假名=외 십삼명을 검거하엿는데 그외도주자도 계속엄탐중이다

國境에初霜

【咸興】함남국경 혜산진지방은(惠山鎭)은 요지음긔온이 급히내려 밤이면벌서 령하이삼도의추위를뵈고잇스며 압록강상류이호언(二號堰)부근에는 지난팔일삼십일에 벌서초상(初霜)이내리엇다는데 례년보담은 이삼주일빠르다면서 겨울의전주(前奏)인듯긴이잇다고한다

紛失된郵便行囊 破裂犯人逮捕

【長湍】긔보=경긔도장단우편소에서 지난오일오전 십시경에고랑포(高浪浦)우편소로 체송하는 우편물를 장단상사회사에서 체송하든도중 우편행랑 한개를분실하얏는데 이급보를접한 장단경찰서에서는 고하(古賀)서장이하 서원이 출동하야 범인엄탐에 노력한결과 동일오후 팔시사십분경에 동군장남면 반정리(伴程里)륙백륙십구번지 김성진(金成鎭)(二一)이란자를 체포하야 엄중취조한결과 범행사실을 전부자백하얏다는바 전긔김성진은 우편행랑을 길에서습득하야 직시 산으로 올나가서 낫으로 파렬하고 소포등속을 전부파복하얏다한다

寺刹令改正準備

총독부에서는 사찰의정화(淨化)를단행하게되야 절의 음식점영업을 전폐하게되엿슴으로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종래에 적용하든 사찰령은 명치사십사년에제정한것으로 시대의 조류에적합치못함으로 취체상 불비한점이만허 이번에이것을 개정하고저 방금립안중이라한다

『中村』偽名한 殊常靑年被捉

帝大校服닙은채로

부내룡산서(龍山署) 고등계에서는 지난 이튼날 한강통(漢江通)십오번지 룡산역전 일지본려관(日之本旅館)에 중촌(中村)이라는 가명으로 투숙한 제대(帝大)학생 교복을닙고 무전취식을 하고잇는 거동수상한 조선청년이 토숙하고잇다는것을 탐문하고 형사수명이 달려가서 동서로인치한후 방금엄중한 취조를하는중인데 청년은 본적을 전남완도군(全南莞島郡)에 두고지난소화륙년 팔월경에 성대반제동맹(城大反帝同盟)사건에 련좌한관계로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이년의 언도를밧고 이래 진주형무소(晉州刑務所)에서 복역을 하다가 지난 팔월이십구일에 만긔출감한 김봉호(金鳳浩)(二二)=假名=로서 출옥하자말자 경성에 올라온것을 그서 고등계에서는 때가 때이니만큼 경긔도 경찰부검거사건이 각지로확대되여가는때이므로 그관계자의 한사람이나 안인가하여 아직준엄한 취조를계속하고 잇다

比較的輕微한 忠南旱害額廿五萬圓

減收豫算面積은近二萬町步 要救濟人員을調査中

충남지방의 한발은 전남북에비하면 그리 심하지는 안치만 칠월이십일 현재에 이앙(移秧)을 못한 면적은 칠천일백사십팔정보에 달하엿든바 칠월이십일에 도내에 평균일백삼십팔『미리』의강우가잇서서 겨우 이앙은 하엿스나 그후팔월이십일까지에 겨우 십삼『미리』밧게 비가오지 안헛슴으로 전부벗 모는 말라죽고 팔월이십일 현재의감수 예상 면적은 일만구천구백사십사정보 이단이고 그수획감소예상고는 팔만칠천일백사십사석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십오만삼천원에 달한다 그리고 도내에서 가장 한발이 심한곳은 부여(扶餘)、서천(舒川)、보령(保寧)、공주(公州)、론산(論山)등지인데 구제하여야될 인원에 대하야는 방금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잇는중이라한다

中南部朝鮮向하야 猛烈한颱風이突擊

全南、慶南、江原道沿岸을警戒하라!

中心示度는七二〇미리

【仁川支局電話】일반농가와 미계(米界)의 공포의 적이되여잇는 이백십일은 무사히지낫스나 아프로 이백이십일과 백로(白露)등 액일이중첩하야 아직도일반의 안심을 가저오지못하고잇드니 해마다 여름이되면 남해에서 갈금생겨서 북상하야 특히 성하이후에는 그『코ー쓰』안과 서안을 칠노하든 례의태풍이 칠일오전여섯시에는 소립원(小笠原)군도부근으로부터 구주명뇌(九州名瀨)의 서북서(西北西)로 약 백『키로』의 해상에 나타나서 북북서(北北西)로 진행하면서 잇다고한다 다시 그진로를 동북으로 전환하야 오늘밤이나 느저도 내일중에는 구주(九州)와 조선해협을 통과할 형세에잇다 방금 이로 인하야 구주와 류구(琉球)제도는 맹렬한 폭풍우에 휩싸혀잇고 조선해협도 호려서 바람이 상당히 강하야 남조선의 해륙은 함께크게 경계를 요한다。 또고기압은 일본해를 건너서 만주와 조선으로 퍼지고 잇다。 이에대하야 인천측후소의 기사는 아래와가치 말한다

이번태풍은 그중심이 칠백이십『밀리』라는 매우 맹렬한것으로서 칠일오전여섯시에는 북위이십구도 동경일백이십팔도인 구주의서남이백『키로』의 해상에잇서서 시속(時速)이십『키로』의 무서운 속도로 북북서로 진행하야 중국동해에 진출하려고하오 중심은 조선서는 아직 거리가 멀어서 조선의연안에는 풍우가업스나 이태풍이 점점 제주도(濟州島)에 각가워옴을따라서 남안은 풍세가 격심해저서 곳곳에 폭풍우가잇슬것이오 오늘 아츰부터 도별서구주서안에는 폭풍우가잇고 조선해협은 풍세가 강하야 황해이남도 이미 점점 바람이 강해지고잇고 태풍은 서북방으로 진행하야 황해로 나가서 거기서 머물고잇다가 방향을 다시 동북으로 고처 가지고 진행할듯한데 따라서 반도의 중부이남은 내일이나 모레는 폭풍우의 습격을 바들듯한데 이로인하야 전조선적으로풍세는강할것이라고운운

暴風警報

【九月七日午前七時三十分仁川觀測所發表】바람이 강할것이다 동북풍이 강하다 처처에 호우가잇고 전라북도의연안을경게한다 저기압(低氣壓)의 중심은 엄미대도(奄美大島)부근에 잇서서 북북서로 진행하려고한다

天氣豫報

【九月七日午前七時三十分仁川觀測所發表】강원도 경상북도의연안을 경계한다

曇

名瀨의 西北西約百粁의 海上에잇는 颱風은 그 勢力이 猛烈하야 中心은 七二〇粍의 示度를 보이고 北北西로 進行中이나 進路를 西北으로 轉換하야 오늘밤중은 九州를 掩襲하려고한다 이로인하야 九州로부터 琉球諸島에 亘하야 暴風雨가되여잇다 高氣壓은 本州의 東海上으로부터 日本海를지나서 滿洲、朝鮮으로 퍼지고잇다 朝鮮海峽은 호려서 相當히 바람이 强하다 朝鮮은 흐리기쉽고 滿洲는 日氣가 조타

昨日 最高 二五、五
同 最低 二一、〇
今 正午 二九、〇

鍾路署管內秋季淸潔

시내종로서(鍾路署)위생계에서는 오는 십륙일부터 관내전부에추게대청결(秋季大淸潔)을시행한다는데 그일정과 구역은 다음과갓다

▲九月十六日 宮井洞 新橋洞 孝子洞 淸雲洞 光化門通一 玉仁洞 通洞 樓下洞 樓上洞 體府洞 昌成洞 通義洞 積善洞 內資洞 社稷洞 弼雲洞 需昌洞(七一〇九)

▲十七日 唐珠洞 西大門町一(二〇一一九 一八七ー三三七) 西大門町二 需昌洞(一一六一一〇一ー二五〇) 都染洞 瑞麟洞(九三一ー六九) 淸進洞(一ー八ー終) 西大門町一(一ー一九 二二〇ー一八九) 光化門通(七七ー二二三) 鍾一(一ー三八 六九ー九九) 中學洞 壽松洞 諫洞 光化門通(二ー七六) 公平洞 淸進洞(一ー二二〇) 鍾一(三九ー六八)

▲十八日 八判洞 三淸洞 花洞 昭格洞 寬勳洞 松峴洞 堅志洞 安國洞 桂洞 嘉會洞 齋洞 慶雲洞 勸農洞 雲泥洞 益善洞 臥龍洞 苑洞

▲十九日 瑞麟洞(一ー九二) 南大門通 仁寺洞 鍾二(三ー三〇 六七ー一〇二) 樂園洞 敦義洞 鍾二(三三ー六六) 鍾三(一ー一五 八六ー一〇二) 貫鐵洞 觀水洞 長沙洞 授恩洞 鳳翼洞 薰井洞 鍾三(一六ー八五 一〇三ー一八〇)

備考 雨天時는 最終日의다음날로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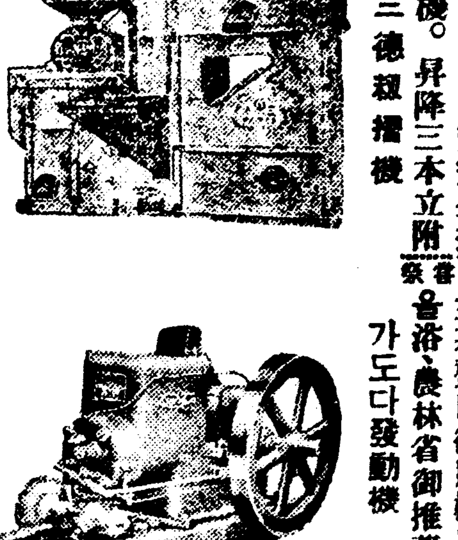
恩給 長期低利立替 如何한恩給이든지 도바로利子로빌려드립니다 借換歡迎 京城府笠井町一五〇 朴商會

結婚 今秋萬花堂은大廉價키爲하야 百年佳約의結婚式用品을新築中인고로廉價로提供하겟사오니紳士淑女諸氏는一次枉臨하심을仰望하나이다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四 萬花堂 電光二〇九三番

品質優良・價格低廉

モリスインキ本舖 丸金株式會社 東京・京城

모ー던全自動完全撰 大主基齋田御用機의 榮別機。昇降三本立附 音浴、農林省御推薦品 三德籾摺機 가도다發動機



京城府太平通二ノ五八 合資會社 會我商店 電話本局二一六八番 振替京城一八九七番 (特約店 大募集)

總督府前電話光三一一三振替京城五七貳貳番 京城金弘琯內科醫院 內科チストマ토질十二指腸虫채독科專門

腫氣에용 表山膏 히삐고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一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利川、淸州、開城、全州、裡里 出張所 [illegible]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獨房 스팀設備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二)四五二一(醫師請) 樂園洞一三五

連日滿員御禮 御讚評裡に十一日まで續映 三回興行 時間割 上映順 一、松竹發聲ニュース 二、蒲田超特作花嫁シリーズ オール・トーキー 眼と耳の新聞 北村小松 原作脚色 野村浩將 監督 田中絹代 小林十九二 主演 三、下加茂本年度超大作 夢うつつ 大阪、東京朝日新聞連載小說 三上於菟吉原作 伊藤大輔 脚色 衣笠貞之助 監督 林長二郎 一人三役 主演 雪之丞變化 洋劇部門 浪花館

九月五日부터特別公開 特作現代猛鬪活劇 興太者學第一課 明暗의岐路에甦生의生活을求하야 헤매는거리의爆彈兒健次가死를賭하야사랑하는妹의危急을救하는大飛躍… 마스라오 仇姿隱密道中 櫻井町 本局 大正館

義主確正切親全完備設 和順鑛務所 京城鍾路 (百貨店和信越便) 電話光化門長2659番 地方便宜를圖키爲하야 通信事務를取扱함

○○鑛業家의 渴望하던新改正版이出來○○ 勿驚! 出版當日에一千部가賣盡○○ 日鮮文 現行 朝鮮鑛業令 附 一般鑛務의見法 菊版全一冊 定價金一圓五十錢 書留送料十四錢(要先金) 本書는昭和十年度新改正된 鑛業令과 銃砲火藥取締令을 비롯하야 鑛山에 關한 …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二〇 振替京城三一九〇一 德興書林

9月8日發賣★ 金剛키네마特作現代映畵 銀河에흐르는情熱 主題歌 銀河에흐르는情熱 獨唱 江南香 (一八〇二番) 主題童謠 갈매기신세 獨唱 鄭慶南 (一八〇四番) 嶺南民謠 쾌지나칭칭나네 湖南民謠 강강수월래 名花 愼淑・吳???? 外八 (1805) OKEH 오ー케ー레ー코ー드 秋期特別新譜

『장장추야(책볼때 일할때) 등잔을가참게하오』

어둔데서일하면 온몸이피로한다

조명―눈―능률의관계

장장추야라니 이제부터 밤은 길어집니다 공부를하는 사내들이나 바느질을하는 안악네들이나 다 한때등人불 아래로 모히실때입니다 자정을 마치어 등人불에 대한 이약이……오십년전만해도 송심지에 기름人불이나 초人대에 초로 막이엇지 어대 람푸가 잇스며 전긔등이 잇섯습니까? 아니 지금도 전긔등의 촉수를 일부러 나추어 어둡컴컴하게 해가지고 게시는 분도 잇지를 안슴니까? 그러나 요사이 새로운 학설로 보면 깜깜한 데서 책을읽거나 일을 하는것이 밝은데서 읽고하는것보담 몹시 피로하답니다. 녯날이라고 사람이 살앗스랴 옷지 마시고 과학을 미뎌서 그대로 실행하시기 권고합니다.

미국 찌 피회사에서 조명연구소(照明研究所)를 설립해가지고 어십년동안 조명을 연구하얏습니다. 조명이란 비칠 조人자와 밝을 명人자로 켜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켄 연구를 하얏나 하면 의자우에 한사람을 안치고 책을 보이는데 반장을 보고날때마다 왼손아래 설치된 긔계단추가 제절로 눌러지도록 합니다. 그러케 한즉 그 사람은

아모런 줄도 모르지만 그단추가 그사람의 근육이 얼마나 긴장되야 잇나를 일일히 긔록해 갑니다. 이와가티 여러사람을 시험한 결과 실룩스』가 될만큼 밝은데서는 평균압력(平均壓力)이 륙집삼그람이요 칠룩스』될만큼 밝은데서는 평균압력이

사십삼그람이엇습니다. 실룩스』로서 칠룩스』로되는데 잇서 손의 압력이 삼대이로 절약될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두울싸록 시신경(視神經)이 광비되야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오니까? 될수잇는대로 밝은 것이 몸에 리로운것이 아니오니까?

×

물론 책을 읽거나 일을 할때의 이약이요 노는때나 잠잘때의

이약이 가아닙니다 노는때 공연히 전긔를 허피쓸맛도 업거니와 더구나 잠잘때는 밝은것이 도리어 나쁩니다. 그러데『룩스』란 얼마나 밝은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일촉되는 불을가지고 한 메터쯤 떨어저서 보는 정도니 쨍쨍한 볏아래 양지쪽은 십만『룩스』요

나무속 그늘진곳은 만룩스』요 방일안은 이천룩스』입니다. 이때껏 우리들은 보통 얼마만한『룩스』아래서 책을읽고 일을하얏는가? 서양서 보통이 삼십내지오십룩스』라니 우리들은 훨씬 그 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삼십내지 오십룩스』도 우리의건강으로 보아서는 퍽부족되는것이랍니다. 그리하야 뎌말할나위조차 업습니다. 조명연구소에서는 다시

한거름 나아가서 저런일을 할때는 얼마만한『룩스』가 필요하고 이런일을 할때는 얼마만한『룩스』가 필요한가를 실험해보앗습니다. 그결과 판명된 표준은 아래와 갓습니다.

×

천룩스』이상. 조각(彫刻) 세

계속되는일이나 힘드는 오백룩스』이상. 교정(校正)제도(製圖) 잘게백인책을 보는 것 시게수선 바느질등 이백룩스』이상, 보통사무소의일, 보통공작의일, 대개는 그일의 계속되는 일을 딸아서 차이가 큽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가튼

세가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재 신문을 보는데는 보통책보담 삼배나 더 밝어야한니다. 둘재 바느질을 하는데는 무엇을 보는것보담 다시 더 밝아야 합니다. 셋재

책보는 데만 밝게하고 다른데를 어둡게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지금이한철!

영양가치풍부한 령남추어탕

―끄리는법은이러타―

이지음은 추어人탕이 재철입니다 추어人탕은 맛도조커니와 영양분이 아주만습니다 추어탕추어탕해도 추어탕으로는 경남추어탕이 제일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닐만치 맛이잇습니다 전에는 추어人탕을 일종의별미로 알고먹든것이 지금와서는 양분이 만타는것이 알녀젓기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퍽만히들 끄려먹습니다 더욱이 추어탕에대한 로동계급의 찬사로 『추어人탕 한사발막걸니 한잔이면 경상감사가 뉘아들이냐』라고 해오는말을 미루어 칼슘이나 비타민이란 일홈이 알여지기이전부터도 추어人탕이 영양상조타는것을 알게되것이 사실갓습니다

끄리는 방법은 먼첨 미구라지를 두사발이나 세사발을사서 한일주일간 깁숙한그릇에담아 날마다 물을 가라주어 미꾸라지에게잇는 구진흙을 깨끗이 빼냅니다. 다음은 소고기―창자와기름진 부분을 알마치 써러 한벌솟에고와둡니다 그리고 미구라지를 속코리에건저서 소금물흥번처서 섞그며거품이 납니다 다음 물을부어 거품을 씨서버리고 솟을 다른후 그안에 붓고뚜껑을러 다떠 한창의힌 물을좀부어 다시업만치끄리다가 밧아지등으로 즙이되도록문대어서 고흔소코리에나 얼개미에다 걸너서 뼈는 버리고 솟에남은 국물에다 먼첨 고와둔 고기를한대붓고 풋고人추, 마눌, 호초가루 간장기름약간을 한대석거 솟에부어석습니다 그래서 국물 너머 묽지안흘정도에 알맛치둘을 부은후 셋치기리쯤되는 어리고 연한속근배추를 우거지국끄리는정도로넣코 갓맛처 폭끄립니다 그리고 풋고초 붉고푸른것을 국직국직하게 써려 먹을때다서먹습니다 식성에따라 후초가루도타먹는데 엇잿든이국은 뜨거울때먹어야 구수―하고 비린내가덜납니다. 특히 비린내를 업시하기위하야 소엽(蘇葉)을 약간너어끄리는 수도잇습니다.

……◇……

일만흔 가을 그중에도『위생』

애기젓떼기・배탈・냉人병…예방

가을철은 건강이조화지는때라고 아모주의도 하지아니하는중에 무서운병이 발생하기 쉬운때문에 도리혀 가을이 위생상 위험한시긔라고 할수도 잇습니다 가을이되면 우선 부인들의 방광념(膀胱炎)이 만습니다 여름동안 지나치게 열분의복을 입는관계와 찬것을 만히먹든 습관이 잇는것을 가을철에도 여전히 그습관을 직히게되여 조금만 몸을차게 굴면그것으로인하야 방광염을 이르키게 됩니다 이병은 소변볼때 알흐기시작하게되면 정신상에도 조치못합니다 또는 이병을그대로 버려두면 신장병이 되여서 잘큰치되지안습니다 절대로 냉한음식、냉한자리를 피하십시요 이가려 주의하지 안흐면 실허도 비뇨과(泌尿科)전문 의사에게 진찰을 밧지안흐면 안되게 됩니다 마엽에 이병에 걸렷슬때라도 가정에서 치료 하는것은 절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병은 맵고짠 자극성 잇는것은 먹지마러야 합니다 그리고될수잇는한 안정이필요하는 찬것을 피해야하고 또가을에는 입맛이 조화진다고 너무만히먹으면 소화불량 원인되야 위장을 해롭게할뿐안니라 무서운 전렵병도 잘걸이게됩니다 이럴때 피마자기를를 늘 준비해두엇다가아희들 설사나 변비증이생길때먹여 뱃속에것을 씨서내게 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순당한식물을 먹고서 안정하십시요 좃음만이라도 보통때와갓지안커든 곳의사를보이지안흐면 악성이됩니다。애기젓을 먹이지안코、떼는때가 가을이면 아주조흡니다 생후만일개년된 애기면은 가을에 젓을 떼십시요 이것이 애기들의 육체를 일생을두고 지배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애처럽게 생각지마시고 애기의 장래를 위하야 단연히 실행치 안흐면 어머니의 자격이 업다는말을 듯게됩니다。또는 구월부터 십월을 겹처서는 통계상 임신률이 만흔 시긔임으로 새로운 가정생활에 드러선분과、임신을 긔대하시는분은 영양소를 취하며 운동을하야 심신을잘 단련하다가 임신하도록 충분히 주의해야합니다 그것을 잘주의 하는데따라 장차생겨날 사랑스러운 아기의 일생을 위하야조흡니다 만

그리고 여름철 자외선을 만히 흡수하는것이 자장조흡니다 또 여름부터 냉수마찰을시작하야 겨을까지 게속하는것과 간식을 안는것은 가을위생상 꼭 직혀야할 조목입니다

결혼완하고볼일 독신자는쉬죽어

+++++ 녀자는임신기만넘기면 남자보다대개오래산다 +++++++

남자와 녀자를 가변령을통하야 미혼자、사별한자、리혼자、부부구존한자、이러케 네 형태중에 어는편이 제일 건강히 장수를하는가를 최근에 내무성사회국에서 조사한결과 일반적으로 긔혼자의 사망률이 독신자보담 훨씬적다고 하는 미국『리취몬』박사의설명으로 알게되엿습니다 사별자와 리혼한자의 사망률의고저가 갓지안코 그중간 들로잇스나 리혼자가 제일사망률이 만탑니다.

배우자의 경우의 사망률이적은것은『스미스』박사의말과가티 다음과갓습니다.

一、결혼 그자체가 자연의과정인것

二、결혼생활은 독신생활에 비하야 규측적이며 질실한것

三、생리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보와 결혼생활이 가장안당하다는것

이러케 세조목을 들거되엿습니다。따라서 독신자의 사망률이 더만흔것은 이상것과반대의경우임을 말할수잇는외에 결혼으로부터 남은사람들의 질(質)의문제등도 중요하게 볼수잇는것입니다。이하는 네가지 지역별로 인구천인에 대한 사망률을 말한것입니다。

배우자사망률

▲남자	
二○―二四세	三・○○%
三○―三四세	五・○○%
五○―五四세	一六・六八%
七五―七九세	一○九・一一%
▲녀자	
二○―二四세	五・五一%
三○―三四세	七・三九%
五○―五四세	一一・三六%
七五―七九세	七九・六三%

이경우를 주목해보면 여자는 대개 임신긔간에 사망률이 남자보담만흐나 이긔간을 지나면 남자보담 사망률이 훨신적게됩니다。

미혼자사망률

▲녀자	
二○―二四세	一九・一七%
三○―三四세	四二・五○%
五○―五四세	一○二・二五%
七五―五九세	二三八・五○%

여기에 주목할것은 오십세까지는 녀자의 사망률이 만코 칠십세가되면 녀자사망률은 감해지고 도리혀 남자편이 만타합니다

미쓰스포츠

一九三五年度

자태의 미보담도 체육에 중점을 두어 건강미의 혜택을 밧은 일천구백삼십오년『미쓰스포―츠』의 선발회사가 최근 스페인의 수부마드리드에서 열엿는데 여기에 참가한 수백의 아름나운 스포츠嬢중으로부터 뽑힌사람이 사진의『맵세테스・가―고』양이랍니다

京城女子基督青年會 主催物한묵금

◇女子[illegible]開始 時日―每週月、木、兩日、밤七時半부터 八時半까지 程度 女高普卒業程度 定員 十人 開講日 十月三日밤七時半 申請期限 十月一日까지

◇會員親睦女性運動會노리 時日 九月十四日(土) 午前十時五十分 京城驛發 午後二時五分 京城驛發 往復車賃 七十六錢 京城驛集合時間 午前部는 午前十時半까지 午後部는 午後一時四十分까지

◇第二回女性團體任員懇親會 時日 九月廿日午後六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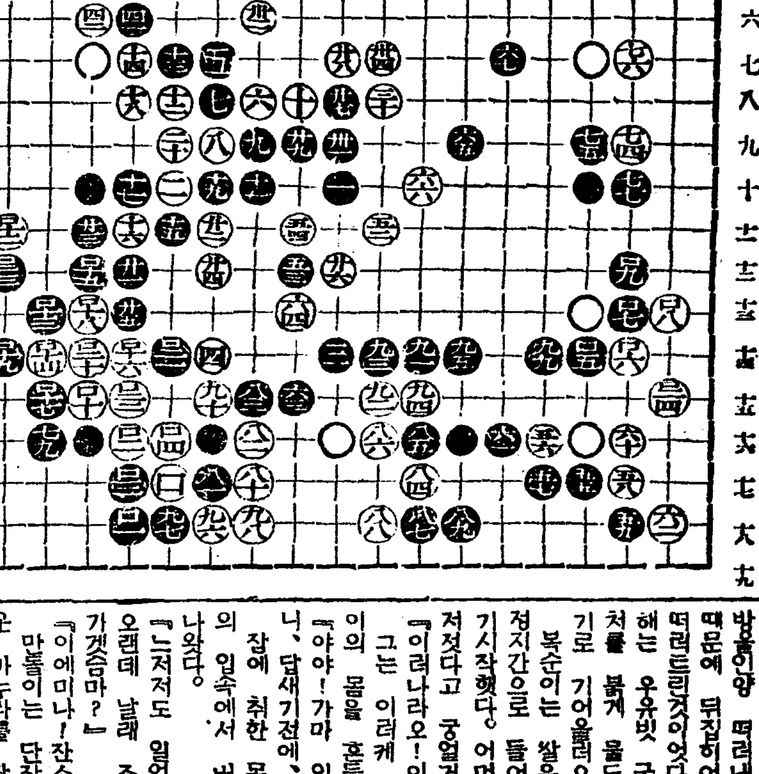
◇職業女性俱樂部月例會 직업여성구락부(職業女性俱樂部)는 오는구일밤일곱시반에 서대문밧정동이십사번지 여자기독청년회관내에서 월례회를 열기로 되엿다 강화 강한여성이되자 高鳳[illegible]氏 會費 一圓 場所 [illegible]

(本社) (主催)

圍碁對局譜 ―8―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四九】丙의十三 【○五○】巳의十五 【●五一】巳의十四 【○五二】未의十二 【●五三】午의十三 【○五四】午의十四 【●五五】巳의十三 【○五六】辰의十四 【●五七】午의十五 【○五八】巳의十三 【●五九】未의十四 【○六○】巳의十四 【●六一】卯의十四 【○六二】辰의十五 【●六三】未의十三 【○六四】乙의十五

◆蔡極文氏評 白이 巳의 十五로 除함을 黑이 巳의 十四로 衛間防禦는 奇妙한 術策이다 이가튼 點은 不易法點으로 捐柳하노라 白은 白의 十四五 黑構內를 多少間縮小만 시키고 先手로 乙의 十五에 列着하니 順序가 適合하다 境界가 略定하고 編戶時機가 追近하엿스니 均勢로 推測하노라

꼬마둥이『포니―』

사람과―인연먼『제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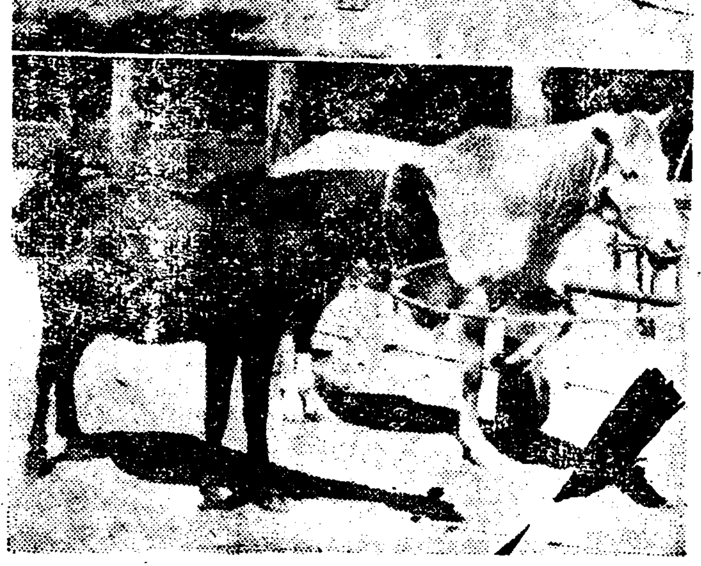
조상은가트나자손은가지각색

지상동물원이라해노코 말이야기가 나오면 종족스럽겟지만 말도동물이요 말중에도 자미잇는 말이잇스니 좀드러보십시요

◇

각설―하고 창경원에가보면 크고적은말이 몃잇습니다 첫재로 커다란흰말이 잇는데 이것은 몽고말(蒙古馬)、그다음에 조선말(여러분이 아는말이니 신통할것업고)、또그다음에 영국스코틀랜드에서나는『포니―』라는 말, 그리고『제부라』라고하는 줄은줄이 죽죽진말입니다.

말이란 원래 나는지방에따라 크고적고・다소다른점이 잇겟지만 현대에이르러 말을개량해서 기르고 거기에서나는말을 종자로 해가지고 또 다시개량을하고해서 퍽 여러가지의 새로운 종류가 생겨난것입니다. 가령말하면 영국의『쎌레브레이트』종이라고해서 경마용(競馬用)으로쓰는말、『아라비아』에서나는말을개량해서 묵어운짐시러나르게 힘센다리를가진말등이 다 그것인데 이런말들은 원래의말과는 형상이 닯어서 몸이 날시신하고다리가 기러서 뛰기에 조흔 체격、다리가 짜르나 굵어서 묵어운것을 잘 끌게생긴체격、이런것이 다개량이되여서 생겨난 특징입니다.



그런데 몽고의말은 조선말보다 몸집이크고 힘도세지만옛날 예쩍 이몽고말이 조선에드려와 면백년을 지나는동안、먹는것이 납바서 그랫든지、기후가 맛지안하그랫든지간에 신체의 발육이 차차뢰보되여 지금의 조선말이 된것입니다. 그뿐아니라 먼저말한『포니』라는말도 원래의 큰말이 이모양으로 자라오는동안 사람들이 더적은 말로 개량을하고또햇기때문에 지금와서는 세계에서 제일적은 종류의 말이되엿습니다 조선말이 적다적다하지만 그보다도 더적어 키가 겨우 이척팔촌밧게안되니 얼마나적은가는 더뭇지안하도알것아닙니까 이런것을 대강알고 말을보면한칭 흥미가 더날것입니다.

◇

다른종류의말은 다그만두고 창경원에잇는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봅시다. 몽고말은 몽고땅이제고창입니다 몽고에서도『코룸바일』이란곳이 조흔 모양인데 이말의 장처를들자면 인내력이 강한것이 첫재특장입니다 즉견뢸성이 만흔것입니다 그리고 식성이 까다롭지안허서 함부로먹어도 병안나는것이 특장입니다 날이몹시더워도 견듸고 몹시치울때 북만주와가티 령하삼십도나 되는어름땅에서도 집안깐 맨땅에굴려저 잠을잔다하니 어지간히어세말입니다.

◇

조선말은 몸집에 비해서기운이센데다가 몸집적은것을 리용하야 군대에서 전쟁할때 구렁이속으로 끌고다니기조타하야 군마로 사용한다합니다 고초는적어도맵다고 괄물것은못됩니다

◇

『스코틀랜드・포니―』는 영국스코틀랜드』에서 모서온말이니 이말은 몸도적고 따라약해서 웬만한어른은 등에실시고 오래것지못할형편입니다 단순히몸적은것이 특색이되여 세계의명물이엿슬뿐 부잣집에 길리워 어린애들이나 실고다니고 말하자면 애완용(愛玩用)의말입니다. 귀하면 귀하다할까요 세상것은 남안가진는색잇는것이 귀한것이니 ―몽고말도자그마치한마리에천원

『제부라』는『아푸리카』대륙너른벌판을 뛰어다니는 들말(野生馬)입니다 사람에게 길안드려지기로 유명하고 성질도 팔팔합니다 그러나 사자의밥이 일수되고 산양人군에게 만히잡아서 그지방에서도 얼마남지안햇다합니다 몸갑은 삽천오백원、어지간하지요。먹는것은 보통말과마찬가지로 귀리、풀、콩가튼것입니다。◇사진―상은『포니―』중은『몽고말』하는『제부라』

家庭醫學

태주에보약

문 금년 이십오세의 녀자이온데 임신사개월입니다 원래 몸이약할뿐더러 삼년전에 출산을한바 말할수업는 난산으로 의사의수술로 겨우 목숨이사려낫는데 이래 건강이 회복되지안허 한약으로 보강을한다고 십전대보환을 복용한바 태아에게는 아무방해가 업스며 보약을 태중에 먹게되면 태아가커저서 순산하기가 어렵다는것이 사실인가요 태중주의와 순산요령과 복용약을 하교하십을 바랍니다 (龍潭讀者)

답 십전대보환이란 엇더한 작용이잇는가는 잘알수가업습니다 마는 그약을 먹엇다고 태아가 커저서 순산하기가 어렵게된다는것은 좀 생각키어려운 일입니다 태중에 주의하실것은 오개월까지는 유산이되기가 쉬움으로 려행은물론곰목이고 자동차나 전차갓흔것을 너머나만히 타지말으십시요. 일반음식물을 주의할것은 물론이오나 특히여름에는 어름가튼것을 아모조록 피하시는게조코 또 학집에 걸니지안토록 모기장안에서 지무시도록하시요 그리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식은 병원에가서 태아의 위치라든지 발육상태를 알어보는것이 조코 해산은 의사나 산파의손을 빌니면 안심하고 날수가잇습니다. 보약으로는『부루도―제』라는 약을 써보십시요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鶴煥)

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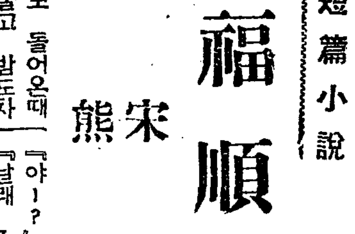
문 저는금년 십칠세의 미혼처녀입니다. 약삼년전부터 홍문에 살점이달녓드니 지금은약일센지(一仙)가량됩니다。압푸지는안는데 각금가려우며 또변비증이생기면 어렵습니다 각금녑수로도씻습니다 치질갓호면 수술을바더야함니가? 가정치료법과 약명을 가르켜주십시요 일독자

답 출혈도업고 동통도업는것이면 치질이라할수업습니다。단순한 종양(포리―푸)일뜻합니다 경과를보아서 더커지거나 출혈이나 동통이생기거든 진찰을 밧고 수술을 하여야합니다 정치료로는 여러가지 좌약(坐藥)이잇스니 이것을사다가 홍문안에 삽입하면 대변보기가 췌신 부드러울것입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成鎭)

남편에게병

문 금년 삼십일세된 녀자이옵시다。십이년전에 여아를 하나낫코 또 아이를 못낫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의사의 진찰을 바덧드니 자궁이 뒤로잣바저섯다고 수술을 하라고하는데 지금나히 삼십이넘고 아이낫지도 십년이 넘은 오날에와서 수술을 한다고 아이를 날것갓지안습니다 저의 남편은 십년전에 림질에 걸려서 우금것 고생중입니다 (新京 崔氏)

답 먼저 두분이가티 림질을 근치하시고 그다음에 수술을바드십시요 지금이라도 병만업스면 임신이 넉넉히 될수잇습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鶴煥)



短篇小說 福順이 (9)

宋影 作 熊超 畫

만놈이가 재집으로 돌어온때는 닭이 두홰나 울고 밤도차차 새여가기시작한때이엇다。

『이년들! 쌍년의새끼들!내가 술이취해서 늦게오면 기다리는게 올지 모도들 잡바저서 에익!화나!물좀 떠오나 복순아!』

그는 되는대로 아모데나 춤을 튀튀배아트며 마누라와 복순이를 단잠으로부터 깨워가지고 한참이나 주정을 펴노흐며 혼자서 짓거리다가 목침도 베지안코서 그대로 코를 구러버렷다。그가잠와 든다음에 집안이・조용해지면서 남은 밤기시작햇다。

『복순아!』

『야―?』

『날래 조반시작하렴! 허리가압허서 난 못이러나것다……』

복순이어머니는 만놈이가 누어잇는겨테서 꾸무럭거리고잇다가 주정뱅이한테 엽구리를 거더채엿든까닭이다。그는 울퉁을 어간 눈을 어렵푸시 감고 들어누엇다。

복순이는 발다이려낫다。그리고 정지간으로 내려가서 쌀항아리에서 쌀을 뜨고、휴대에서 좁쌀을 퍼내가지고 샘물로 나갓다。

녀름의 새벽은 진실로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이르키게 하엿다。안개가 거치어진에 따라서 파―라케 벗기어지는 부을 내미는 구석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하늘로 판으로 퍼지며되면서 검은머리처럼 떼허이잇는 안산의 숯밧모양이 뚜렷하게 얼골을 내노코 꼴지구니마다 서리엇든 안개는 실오리가치 풀리어가면서 하늘로 말려올려가고잇섯다。짜놀한 촉감을 주는 바람이 산꼭자기에서 스르르 흘려나리면서『아카시아』의 나무가지를 키크고 허리괴옹업는 강냉이 대를 굽실거리게하엿다。나무닙파리에서 반짝하고 이슬이 빗나는것갓드니 복순이이마우로 두어방울빗방울이양 떠러내렷다。산들바람때문에 뒤집히어진 납사귀에서 떠러드린것이엇다。그때에 벌서 해는 우유빗 구름을 헤치고근처를 붉게 물드리면서 산꼭대기로 기어울려오고잇섯다。

복순이는 쌀을 씨서 가지고 정지간으로 들어가서는 불을 때기시작햇다。어머니는 조반이 느저저다고 궁얼거리엇다。

『이려나라오!이려나라오요!』

그는 이러케 말하면서 만놈이의 몸을 흔들엇다。

『야야!가마 잇스라! 노―마니、답새기전에, 깨우지말라!』

잠에 취한 목소래가 만놈이의 입속에서 벌붙거려저 울려나왓다。

『느저도 일어낫슴마? 날밝은지 오래데 날래 조반하고 일아니 가겟슴마?』

『이에미나! 잔소를 또하겟슨?』

만놈이는 단잠을 흔들어 깨운 마누라를 당장에 죽이기나 할듯이 고개를 처들고 이러나서 돌레돌레 목침을 차젓다。그럼지음에 광산사무소에서 울리는 고동소리가 뚜―하고 길게울기시작한다。

『고동부는데 이러나서 무슨일하노!더 잡바저자렴!』

마누라의 동을 품은 빈정대는말을 듯고서도 고동소리에 놀낸 만놈이는 그까진말을 타낼 여가가 업는것가래스다。사실、벌서 광산의 작업시간은 시작되엇다。지금부터 항내(坑內)에서 일할광부나 또는 긔계간에서 일할광부나 누구를 물론하고 감독의 지휘하는 자리에 가서 여장을 들지안흐면 일자리에서 떠러지게된 제도이엇다 지금까지도 두어번이나 만놈이는 그고등시간에 지각을한일이 잇섯다。그래서 그때마다 사무실에서는 해고하겟다고 서들다가도 원체 만놈이의 애걸도애걸이려니와、사무실형편으로도인부가 모자라는 처지엇든 관계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또취소하엿든터이다。

만놈이는、술이 덜개인정신일망정 오늘은 그전에 지각햇슬때보다도 훨신더 시간이 느저젓슴을 개달엇다。그래서 그는 세수도 안하고、그대로『지까다비』를 신고 다려나려고 덤비기시작하엿다。

『아바이! 조반하구 가시오그레。』

복순이가 정지에서 불이야불이야 채려논 밥상을 들어다가 뜰우에 노흐면서 말햇다。

『조반이라니! 점심 싼것이나 가저가믄 촉하지!』

하고서 만놈이는 수건에 싸노흔『벤또』를、홍치듯기、상우에서 집어가지고 다름질해 나갓다。삽삭문밧게 뛰어가고잇는 만놈이의 뒷모양이、복순이 눈에는 술주정꾼의 다름질로밧게 보이지안헛다。

『지고미라서 멧시간인지 키사마 모랏소?수리 바미 사이도로― 초―구마리핫쇼데!빠가!』

어제、각게人간압해서 섯다가든 감독은、사무실압헤、모다가리고보든다、독살을 부린다。만놈이를 붓들고、떠릴듯이 노『오마에、잇다가 이리하고서사무시리로 왓소!내 마리하루꺼 잇소마리야!와캇다까?』

『야―』

만놈이는 간신히 나오는 대답을하고서 제가맡은 구역으로 [illegible]

七日 (土曜)

◇午後六時 [illegible] 一、어름방상 봇(高) 二、제비형제(同) 三、성낫다풀낫다(全) 四、오마사리(宋) 五、라듸오는조흔것(同) 六、고초(全) 七、꾀꼬리(同) 伴奏 金明植 宋南先 高天命 玄[illegible]

◇同六時二○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二○分 라듸오學校 秋花栽培法(二) 金令濂

◇同七時三○ 時事解說 高義駿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 寬大한愛人 친전어벤(?)脚色 柳致眞 演出案 …全一幕…(配役) 姜정지…李[illegible] 그의妻…林芝憲 그의딸…金福鎭 尹영감…孟晩植 奉益…宋在善 劇藝術研究會 指揮 柳致眞 効果 効果班

◇同八時四○分 秋風感別曲 一、秋風感別曲 二、寧邊歌 三、孔明家 四、노래가락 白牧丹 柳開東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三數大葉 三、言樂 四、編樂五、編 玄琴李尙俊 洋琴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金一宇 金雨鵲

八日 (日曜)

◇午後六時 레코―드音樂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仁의解說 安寅植

◇同七時三○分 獨唱 一、歌劇『메리위도』中에서 빌리아…레하―르作曲 二、들蔷薇…슈―베―트作曲 三、歌劇 오레몬中에서…베르듸作曲 아베마리아 四、歌劇『칼멘』中에서…비제作曲 하바네라 五、歌劇 마담바다플라이』中에서…푸치니作曲 아면개인날 피아노伴奏 金永煥 朴景嬉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鏡國名山 二、唱劇調 春香傳中御使出道하는데 金昌龍 鼓手・池龍九

◇同八時三○分 俗曲 一、軍樂 二、굿거리 三、梅花打鈴 四、방아打鈴 五、늴니리아 六、梧桐나무 洋琴과短簫・崔壽成 奚琴・池龍九 細笛・高載德

◇同九時 놀양外 一、놀양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四、방아타령 五、양산도 李哈吉 李山 李哈吉 卓福萬 金泰運

九日 (月曜)

◇午後○時五分 (東)管絃樂 新交響樂團

◇同二時 衛生講座 結核의豫防

◇同六時 明笛獨奏 一、홈―스위―트홈 二、퍽필새 三、로―렐라이 四、푸른하늘 五、菊花 六、토셀리―의세레나―데 鄭求忠 피아노伴奏 金吉洪

◇同六時二五分 産業ニュース 經濟解說 李吉相

◇同七時三○分 常識講話 經濟의各種相 盧東奎

◇同八時 流行歌 一、놀고가지고…金敎聲作曲 二、南浦의追憶…李愚相作曲 三、處女祭 同 四、鳳仙花 同 五、달도짐니다…大村能章作曲 六、新가…金永煥作曲 歌手 DK

◇同八時三○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興夫歌 歌手 吳翡翠 鼓手 韓成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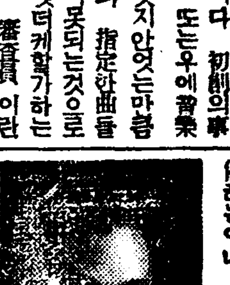
◇同九時○分 連續怪談 黑心(一) [illegible]

曆 九月八日(日) 丁亥・土・鬼・[illegible] 陰八月(大)十一日

全朝鮮男女專門學校音樂콩쿨을압두고서 (1)

誠意를다하야— 出戰하라!

音樂部審査員 玄濟明



콩쿨이란말은 音樂競演會란말이다 音樂競演이라고함은 體育에잇서서 『올림픽』이 잇는거와 맛찬가지로 音樂에잇서서도 音樂各部門을따라 競演을하는것이다 이리하여서 音樂文化에 向上發達과 音樂精神에

高調 音樂家로서의 반드시 가저야할『뮤ー직시안쉽』等여러가지 意味로서 업지못할 會合이라고보겟다 先進 各國에서는 그範圍가 커서 部門으로 말하더래도 器樂에잇서서 各種으로 團體音樂으로서는 合唱, 管絃樂, 室樂에잇서서는 各部類를 區別하여 노앗고 作曲에잇서서도 同一範圍로 各分하야 出演者로하여곰各自獨特한 長技를 發揮하기에 조곰도 不安이 업스리만치 各種部門으로 區分하여 잇는것이다 따라서

入選 이되고보면 이야말로 登龍門이며 그 資格을 是認하게되여 압날 出世와 硏究에아모障碍가업시 되는것이다 따라 그네들은 數百年을두고歷史的背景을 가지고 잇는이만치 前般은圓熟과 最高權威를가지고 잇는것이다 우리社會에서는 中等學生들의音樂奬勵를爲하야 延專主催인 中等學校競演音樂會가 잇는이外에 一般社會的으로 組織的한 音樂콩쿨은 아마도 이번이

創始 인것이다 初創의事이고 또는우에 音樂文化가 水準이서잇지안엇는마큼 그部門에 貪弱함과 指定한曲을 이 最高의 作曲이못되는것으로서든지 審査를 엇더케할가하는 두려운마음(審者는 審査員 이란 光榮을입고도恐怖心이잇다)이모든 點으로보아 엇더한 結果를 멧을가하는 것이實로 疑問이다 그러면 이러 하다고 時期尙早만을 말하고 席에 傍觀만 하고 冷笑만 하고 잇을 것인가 그러치안으면 初創에 不安이 잇더래도 互相協力하야

朝鮮 音樂 文化事業에첫 階段을 싸하 볼가 이러한意味에잇서서 이일을 主催하는이나 參加出演하는이들이나 審査員들이나 또社會人士들이 다가티 이조흔 意味에잇서서 誠意를다하고 또한 聲援할것을 밋는바이다 이에따라 參加하시는 音樂家諸氏에게 두어말로써 勸告하여보려고한다 콩쿨이란 興行이아니며 好奇心으로는 出演하지말아야한다 眞實되고

誠意 잇는 이라야 안되는것이니 [illegible] 과 [illegible]로 할것이 아니가 그리하야 樂曲에잇서서 充實한練習과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가지고 出戰해야할것이다 井中蛙格으로 自己鄕里에서 내로라고 自負만으로 오지말고 多少間이라도 그樂曲을 理解하고 解釋할만한先生의게 指導를밧고나오기를바라는同時에 自己만을 固執지말고 自己가 出戰을하여야 되겟는가를 自己스사로가 몬저判斷을해볼것이다 自己를 알아야할것이며 自己의 分에넘치는曲은 손대지말것이며 무어이든지

完全을 目的 할것이다 入選에樂만을 바라지말고 眞實된技術 充實된練習, 最善의 表現만을 가진다면 그것으로서 滿足할것이다 自己보다 實力이 優秀한 同演者의게 언제든지 敬意를表하며 自己中心을 떼버리고 完全한『뮤직시안쉽』을 가지자 入賞이되엿다고 驕慢이나되듯이말고 언제던지 自重하고 硏究에 努力向上하자 入賞이못되엿다고 落心말지며 最善을다하엿거던 그것으로서

滿足하고 더욱 硏磨에 꾸준히 努力하자 競演者의 審査員에게 對한態度로서는 언제던지 信任하고 一任하여버리며 何等日可日否의 干涉이라던가 또는感情에 흐르지말자 音樂콩쿨에잇서서는 審査員이 各部에多數이 綜合審査함에도 不顧하고往往不平을 말하고 感情에흐르는일이 外國에서도 흔히잇는것이다 이러한 非『뮤직시안쉽』은 우리 社會에서는 發入치 말기를바란다。

學藝

現代哲學과『人間』問題 —特히『루넷산스』와의關聯에서— ④

朴致祐

『루넷산스』가 發見한 人間은 當時人의 想像과는 反對로『純粹人間』일수도업섯고 希臘的인人間일수도업섯다 結局 市民的인人間이엿다 이것은 웨이엿든가?

理由는 極히 單純한것이니 대체商品生産과 貨幣經濟에 依存해서만될 市民層의 文化運動으로서의『루넷산스』의 人間發見이、全然異質的인下部構造에 制約된 希臘의 人間『型』과 相異할것은 至極히 自然스러운일이 아닌가 兩時代의下部構造가 相異한以上 그우에制約될 兩時代의 觀念型으로서의 人間『型』이 相異할것은 不可避한事實이 아닌가 나는 只今 不可避라는 術語를썻다 이述語는 誤解되기쉬운 術語이다 그러나 내가말하는『不可避』는 下部構造가 相異한以上 아모리 일부러 希臘的人間의『타입』을 構成하려고해도 別수업섯다는 이러한單純한 意味에서말한것이 아니라

市民的인 下部構造가 希臘的인 人間을부터 『타입』을 밧듯이『必要』로 한것이 아니고 一義的으로正히市民的인 人間의『타입』을『要求』하엿기때문에 不可避하엿다는 意味로 取擇되어야한다。웨이냐하면 思想과 그의 下部構造와의 制約關係는 흔히생각하듯이 마치 事物과 그의 影像과의 關係와가튼 그러한 一方的 平面的 反射關係、말하자면『幾何學的反映關係』가 아니라、一者가 他者를 相互要求的으로 制約하는 그러한 相互要求인 制約、말하자면『力學的制約關係』이기때문이다『루넷산스』가 設使『純粹人間』이나 希臘的인 人間의『타입』을 만들어내려고 애를썻더래도 못되고만것은 처음부터 바로 市民的인 人間의『타입』의

構成그것만을 市民的組織自體가『要求』하기때문이엿든고로『要求』에 이러케 即하여는 [illegible] 엿기때문에 單純한 한개의 文化運動임에도 不拘하고 市民的組織의 生成發展에 重大한 促進力으로서 『反制約』을 할수잇섯든것이라고 봄이 妥當한 見解라고 나는 생각한다。

以上 나는 支離하리만치『루넷산스』라는 한개의 文化運動을『루넷산스』는 人間을 發見하엿다。』라는 말과 關聯식혀 分析해 본것이다 그러면 대체이와가튼 分析이 우리本來의課題의 解明에 얼마만한

便宜를 줄수잇는것일가。

『루넷산스』라는 一의特殊現象에關한 以上과가튼不備한 分析만으로도 우리는 歷史認識에關한 다음과가튼 몃개의眞理를되려 깨달을수 잇는것이다。(첫재로)歷史는 辨證法的인『發展』일수는잇서도決코『反復』은 아니라는것 即歷史는矛盾의相克에依한 一回的飛躍的連續이라는 事實을 알수잇는것이며 (둘재로) 한時代의 人間『타입』의構成——따라서 이構成의 直接擔當者인 觀念力은 其時代의 社會의 構造的推移와 力學的制約關係를 가진다는 事實을알수잇는것이며(세재로)正히 이러하기때문에 一時代로부터 他時代에로의『轉換期』에는 언제나 人間『타입』의問題

人間에對한 새로운 反省이 强要된다는事實을알수잇는것이다。

或은 이러케말할는지도모른다。即 中世로부터近世에넘어오던『轉換期』『루넷산스』에는 人間의問題가 그처럼 問題되엿든것은 事實이나 古代가 中世에 넘어오든 그轉換期 即 저人間을喪失햇다는 中世에넘어오든 그轉換期에도 亦是『루넷산스』와 同一한 情熱的인 人間反省이 잇섯든냐고。

그러나 이러한 말은 前에도 말한 바와가티『루넷산스』의自我發見을 純粹人間을 發見햇다는 意味로 바게 理解못한 結果로 부터 생겨지는 誤解에 不過한 것이다 中世는 人間을 일허버린 時代라고하나 初期中世人이 人間을 일키위하야 얼마나피투성이되도록 싸웟는가를 全然沒却하고 하는말이다

哲學史上의 所謂希臘羅馬的 哲學時代 더욱히『네로』皇帝의 虐殺을 견듸여가면서 中世人이 人間을 神에게맛기기 爲하야 얼마나 싸웟든것을 보지못하는가! 初期中世人은『루넷산스』와는 反對로」人間을 일허버리기 爲하야 人間問題에 對하야 深刻한 反省을겨 거오던것이다。이러한 意味에서나는 轉換期는 언제나 人間의問題에 對한 强烈한 反省을 이르키고야만다는 먼저말한말을取消할 아모러한必要도 늣기지안는바이다。

『루넷산스』라는 偉大한 文化運動이 잇슨지 벌서五世紀有餘 社會의외갓 領域이 危機를부르짓고 文化의 외갓部門이『近代的人間』『市民的人間』의

破綻을 傳하고잇는 오늘 다시 새로운 人間의 發見이 人間에對한 根本的인 反省이 要望되게되엿다는 現下의 情勢는 果然한개의 單純한 偶然에 지나지못할 現象일것일가! 이때를 當하야 希臘以來로 文化의守護者 指導者로 自負하든 哲學이 人間의問題를 自身의 緊急問題로 問題삼지아니치못하게된 事實도 또한 單純히 한개의 流行에 不過한 現象일가!

우리는 지금에야 겨우 우리의 本來의 課題에 對한 解明의 端緖를 잡은듯하다。即——

무엇때문에 現代의 哲學은 새로히 人間의 問題를 自身의緊急한 問題로 問題삼지아니치못하게 되엿든가?한다면 우리는 이러케 對答할수잇다。그것은 現代가 바로『轉換期』이기때문이다 라고。

作家·評家·讀者 (三)

金煥泰

그러타 우리는 먼저 이말을 全部是認하여두자 批評家란 創作能力에잇서서 到底히 作家를 딸울수업는것이다。그들中에는 創作에 失敗하야 轉職한 사람도 만타。

그리고 批評家는 아모런 高讀鮫論으로도 決코

偉大한 作家를 만들어내일수도 또는 丸肅한 作家의게 偉大한 作品을 産出식힐수도 업는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批評家는 完全히 그의存在理由를喪失한것일가?

압헤서 말한바와가티 眞正한 批評家는 作品에서 어든印象을 그의暗示된 方向에따아 다시그 作品을 再構成하는 自由를 即『로벗、린드』의말을 빌면『作品의肖像畵를그릴』自由를 가진다 그리하야 作家는

現實의 肖像畵를 그리며 評家는 作品의肖像畵를 그린다는 이點에서 批評家는또한 一種의 創作家며、眞正한作家가 産出된 作品을 제스사로 다시 鑑賞하는 그속에서、어든滿足과 幸福을 늣길수가 잇는거와가티 批評家도 또한 그의批評에 잇서서 讀者와 聽者업시도

愉悅을 다시 換言하면 作品이 評者나 讀者를 豫想하지안코도 제스스로 存在理由를 차즐수가 잇는거와가티 批評도또한 單獨으로도 存在할수잇는 理由를가지는것이다。

그리고 評家는 또한 우에서 말한어느 意味의 創作能力의行使에서뿐아니라 作品에서 어든印象을

反省하며 分析하고 批判하는 批評力의行使 그곳에서 그의 作品의 完成한뒤 讀者나 評者에 對한 反響이나 效果를 不問하고、自己의 創作能力의行使 그곳에서、그리고 自己의理想的 創作活動과 構成的體驗에도 그것만으로 어느 깃봄을 맛볼수잇는것이다。

그리고 批評能力과 創作能力은 本質的 意味에잇서서 絶然히 區別할수는업스나 사람에는 批評能力이 더 發達한 사람과 創作力이 더 發達한 사람과의 두종이 잇다는것 그리고 批評能力도 또한 創作能力과함께 人間에 本質的 能力이며、人間의 文化生活에잇서서、다가티 重要한것이라는것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讀者 업는 作品이나 批評이 잇슬수도잇다는 것을 말하여왓다。그러나 實際에잇서서는 作品과 評이 잇는곳에 반드시 讀者가잇다。이리하야 作品의 讀者속에 批評家와 一般文學 愛好家가 잇스며、批評의 讀者中에 作家와 一般文學愛好家가잇다。이제우리는 批評의 이두種類의 讀者에 對하야 좀더생각하여보기로하고 먼저 批評家와 批評讀者로서의 一般文學愛好家의關係로부터 考察하여보자。

批評家의 가장빠지기 쉬운僭越한 思想의하나는 그가文學愛好家의게 文學鑑賞法을

敎授할수 잇다는 것이요 文學愛好家의 가장빠지기 쉬운 誤謬의 하나는 오랜文學的 巡禮의 길을 밟지도안코 쉬사리 批評家의게 文學鑑賞法을 배흘수잇다고 盲信하는것이다。

文學作品은 各其 한生命體이다。그리하야 우리가 한作品을 鑑賞하라면 우리는 먼저 그作品에 담긴生命——熱烈한、屈强한、柔軟한 그리고 溫和한 生命力을 늣기지안코면안되다

漢字의研究 字音의研究方法 (六)

洪起文

어떠케 하면 漢字의 古代音을 차즐 수 잇슬까? 表音文字가 아닌 漢字로서는 困難한 事業이 아닐까?

一、諧聲字의研究

그러나 첫재로 諧聲字가 잇다는 것을 이저서는 안된다。그 原字와 그 字를 빌어서 音을 表示한 모든 諧聲字를 比較하는 곳에 적어도 一條의 光明을 發見케 될 것이다。

江과工 河와可 衛와御 行이 元來 同音이엇다는것은 이미 말한 바어니와 敢과嚴、斬과漸、談과炎、立과颯、給과合 此와柴等도 모다 同音이엇다고 보아서 조타。그이외에도 隣과憐、堅과緊、鑑과濫、闌、練과諫等 同一한 字를 빌어 그音을 表示한만큼 同音이 아니엇든가고 推測되다

二、一字異音의研究

둘재로 한字가 轉注或은假借로 因하야 따意義를 가질때 각 다른音을 가지고 잇다는 것도 이저서는 안된다。一字異音의 各字를 硏究하는 곳에 또다시 一條의 光明을 더 하게 될 것이다。왜그러고 하면 그當時 同一한 音이엇기때문에 轉注 乃至 假借의 原則을 適用한 것이 아니겟는가? 지금 서로 다른 音을 가지게 되얏다고하더라도 그것은 結局 後日의 變함이 아니엇슬까? 例컨댄 可否라고 할때와 否往이라고할때에 否字는 달은 音을 내고 殺人이라고 할때와 殺이라고 할때에 殺字도 다른 音을 내지만 그本來 同一한 音으로 뒤音의 變遷을 따아서 字音이 서로달려진데 지나지 안는다는 말이다。이와가티 回復의 復과 復生의復 毒蛇의蛇와 委蛇의蛇 蟬蛻의蟬과 黏蟬의蟬 告目의告와 出必告의告、樂은 모다 그러할것이다。

三、外語音譯의研究

셋재로 外語의 音譯으로 보아서 그古代音을 斟酌할 수도 잇다。위선 佛經中에는 梵語의 原語를 音譯한것이 잇는터로 그音譯을 처음으로 시작한 魏晉間의 音을 차즐수 잇는것이다。

三昧 Samadhi

菩提薩埵 Bodhisattva

阿彌陀佛 Amitabha

達磨 Darma

優婆塞 Upasaka

優婆提舍 Upadesa

勿論 여긔서 注意할 것은 그 音譯이 밧듯이 音을 옴기기에 正確하얏느냐 아니냐의 問題다。萬一 그저 近似한 音을 빌어 便宜대로 옴긴것이라면 그것을 곳 證據로 들어서 古代音을 考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四、古代固有名詞의 研究

넷재로 同一한 古代의固有名詞가 異音의字로 表示되는것을 보아서 그 古代音을 斟酌할수도 잇다。萬一 同音의 字가 아니엇다면 同一한 固有名詞에 가치 쓰일리가 업섯슬것이다 伏羲와 庖羲、女英과 女䔄는 그 조흔 例의 하나다。여긔서 비로소 伏과庖 英과䔄이 元來同音이엇다는 것을 알게 되얏다。

五、古韻의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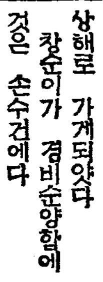
우리가 詩經으로부터 漢魏古詩의 押韻을 仔細히 살피어 본다면 今日의音으로는 全然히 틀리는 韻을 한데 다는 수가 만히 잇다。古代의 押韻이 반듯이 嚴格하얏슬 것은 아니로되 이 왕청나게 틀리는 것을 同韻으로 달리는 萬無하다。거긔서도古今의 字音이 相異함을 暗示하는 것이 아닌가? 古代音硏究에잇서 엇지 이古韻의硏究를 輕視할것인가? 위선 詩鄭風의女曰雞鳴章을 보면 知子之來之 雜佩以贈之라고하야 來와贈을 한데달고 易林을보면 天其所譽 悔吝相仍이라고하야 得과仍을 한데 달앗다。古韻으로 보아서 來와贈 得과仍이 반듯이 同韻이라고까지는 斷言치 못하더라도 類似韻임에 틀림이 업는 것이다

詩 季節의愛人

李大容

졋빗 은쟁반 우에
푸른 포도 세송이
한알 한알 彈力잇는 線을 그리고
맑은 한알 蠱惑的인 微笑를 띄친다
나즉이 떠도는 그윽한 향기
열븐 꿈을 수노코 지어버리고한다
季節의 愛人
八月의 片貌
열매 맷는것은 八月의 衿持
열매 거두는것은 八月의 欣喜

無冠의帝王 『로ー렌스』像



【倫敦發聯合郵信】無冠帝王으로서 알여진『아라비아』의 T·E·『로ー렌스』의 紀念像이 近者에 倫敦의『센트·보ー르』寺院內『넬손』提督其他英國의 英雄들의 墓側에 서기로되엿다고한다 이計劃의發起人은 例의『버ー나ー드·쇼ー』翁、政界의長老『랄프·칸ー』氏、『아ー릴』卿等 故人의 熱烈한 私淑者들로서 銅像建立費는 全英國의『로ー렌스』崇拜者『로ー렌스』의 舊友들에게 募集되엿다。『로ー렌스』像은 巨匠『엘릭크·켄신톤』氏의손으로 되엿는데 靑銅의首像이라고한다。寶座에새여진 文字도 無冠帝王이엿든 그에게 맛추어서 다만『아라비아』의『로ー렌스』라고 씨엿슬따름이고 다른말은 한마되도 업다고한다。따라서『도ー셋트』州『크라우스힐』에 잇는『로ー렌스』의 살든 小家屋은 周圍의土地와 함께 國有로해서 永久히 後世에 保存하기로 하엿다고 한다

新刊紹介

◀國際知識 九月號 東京丸の內二ノ十二 財團法人日本國際協會發行 振替東京五五一八二番 定價四十錢

◀제자와 九月號 平壤府新陽里大五의六 제자와社發行 振替五二三一番 定價五錢

黑風 【222】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8

창순의 빼지는것을 보고 해적선에서 놀나는것은 물론이고 경비순양함에서도 놀나고 이상하게 생각하야서 한편으로 창순이가 던진것을 조사하고 한편으로는 창순을 구조하얏는데 다행히 창순은 구조망(救助網)에 걸려서 생명을 건지게되얏다

경비순양함에서는 해적선에 대하야 배를 멈추라는 신호를하고 대포 한방을 놋는대 그소리가 바다 하늘을 울리엿다 해적들은 간담이 부서지는듯 하얏다 해적선은 도망하랴고 하얏스나 때는 느젓다 경비순양함에서는 해적선에다 대포부리를 대히고 무장해제(武裝解除)를 명하얏다 해적들은 꼼작못하고 무장해제를 당하얏다 경비순양함에서는 해적선을 결박하고 해적들을 배두에 달고서 상해로 가게되얏다

창순이가 경비순양함에 던진것은 손수건에다 『이것은 해적선이니 잡으시오』라는 간단한말을 혈서(血書)한것이엇다 그것은 창순이가 해적선에서 기도한다고 드러갓슬때에 손ㅅ가락을 깨무러서 쓴것인대 그것만으로는 던질수가 업겟스므로 자기의 팔목시계를 싸서 던진것이엇다

세상에는 총이나 칼의힘 보다 사람의 지혜의힘은 큰것이엇다 물은 하늘갓고 하늘은 물갓허서 조금도 수축을 늣길땅이 업는중에 배ㅅ가온대 사람이 다 적국(敵國)이어서 아홉번 죽을수는 잇슬지언정 한번도 살수는 업거늘 조고마한처끗을 번거롭지 안케 놀려서 삼백명의 무장한 해적을 한칼의 적은힘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수륙이 잡은것은 십팔세의 어엽분 창순이엇다

경비순양함에서 창순의 일을 듯은 사람은 누구든지 놀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업고 창순을 어엽비 역이지 안는사람이 업섯다

창순은 경비순양함에서 여러가지로 치료를바다 몸과 정신이 저욱이 회복되얏다 창순은 몸은 겨우 사지에서 버서낫스나 마음은 다시 가시 덤불로 드러갓다 그것은 왕한을 생각하는 까닭이엇다 때에 조흔 인상을 주든 왕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야 생사를 도라보지 아니 하고 해적들과 싸우든 왕한、그는 밧드시 해적의 손에 죽엇스리라고 생각하얏다 그리하야 창순은자기혼저 사라난것이 그대지 깃부지 안타는것보다 왕한에게죄가 되는줄로 생각하야서 창자는 저리고 마음은 어지러웟다 창순은 꿈이라도 꾸어서 왕한의 압부를 아랏스면 하고 생각하얏스나 피로운생각으로 잠을 이루지못하므로꿈조차 꿀수가 업섯다

창순의 근심을 싯엇스나 창순의 꿈은 실현못한 경비순양함을 운전하는 기게소리는 파도소리와 함께 날과 밤으로 쉬지아니 하얏다

창백한 얼골에 힘업는 거름으로 서풍에 날리는 머리터럭을 가벼웁게 씨다듬으며 상해부두에 나타난 창순은 경비순양함으로 부터 경찰에 넘어가는 해적들을 바라보앗다 한편으로는 상쾌도 하얏지마는 한편으로는 아모리 해적이라 할지라도 자기로 말매아마서 삼백명 사람이 죽게 되는것이 측은 하기도 하얏다 그리하야 차라리 자기 한몸이 욕을보든지 죽든지 하더라도 그사람들을 살렷드면 하는 생각도 업지아니하얏스나 그것은 한때의 감정이엇다

창순은 조그마한 여관으로 드러갓다 창순은 배에 잇슬때에는 정신이 긴장되야서 몸에대한 고통을 깨닷지 못하얏스나 육지에 나온뒤로는 마음이 풀리고 몸이 게을러서 해적에게 다친것과 물에빠젓든 여독이 바야흐로 괴로워서 기운을 차릴수가 업슬만치 피곤하얏다 따라서 가젓든것은 행장이나 재물을 물론하고 해적에게 빼앗것스므로 치료비는 고사하고 여비까지 업시되얏다 그리하야 신병과 근심이 안ㅅ박그로 핍박하는 창순은 구분의 죽엄에서 겨우 버서나서 다시일본의 생기도 업시되얏다

家庭医学

結核의誘因이되는 여름여위의恢復法

初秋에結核과死亡率이만허짐은夏節에衰弱이原因

初秋에는 아즉 溫度가 높음으로 身體의 新陳代謝가 激烈하게 保溫때문에 皮下脂肪도 必要치안음으로서 冬季에 比하야 多少間體重이 減한다고 하는것은 生理的自然의 現象이며 別로念慮할바는 안된다、이것이엇던 程度를지나면 健康을 脅迫하는 重大性을 띄고잇습니다。特히 胃腸病、結核性의病症 慢性病으로 衰弱된 분에게는 그影響이가장 顯著한것이엇습니다 結核患者의 死亡數가 嚴寒보다도 暑熱에 이르러서 顯히그數가만타고 하는것은 夏期에衰弱이

病者에미치는害惡

의 一面을 證據세우는것이라고 할수잇다。그리하야 自體에 病이잇는분이나 虛弱한분은 이여름여위에걸이지 안토록 注意하지안어서는 안되는것이옵니다、實際로 또한 그러한분은 여름여위에 걸이기가장 쉬운것이옵니다。

벌서 더웁다고하더라도 立秋가 지나고 朝夕으로선듯선듯하는 淸凉한바람이 어느덧닥어와습으로써 只今까지여름여위의 傾向이 잇든분들은 하로밧비 여름여위로부터 脫出하야 體力을恢復식힐것을 講究치안어서는 안됩니다。

여름여위의 第一徵候라고할만한 것은 食慾의不進하는 것이옵니다。夏節은 體溫保持에 要하는 카로리ー가 적어도 지나게됨으로써 食物도冬期처럼 만히攝取안하여라도 無妨할것갓지만 여름여위라는분들은 그것이 度를 지나처서 顯著하게

食慾을害치며

生理上必要한 日常의 營養量의 攝取가 不足하게되는것이 옵니다。

이런 食慾不振의 原因은、一般的으로 胃腸의 活動이 弱하여젓슴으로 써라고 生覺하여와 섯지만、勿論그럴에 틀님업는것이 事實이지만、오직 이것을胃腸을 除外한 衰弱이라고 生覺하고 胃腸藥만에 藥을 給與하야 治療할수 잇다고 生覺하는 것은 今日과가티 進步된 醫學上的知識으로서 말한다면 時代에 뒤진觀이 잇습니다。今日에는 어떠한 病이라도 個個의症候를 붓어가지고 그것을 治療하게다는것보다도、全身的으로 自體의 機能을 昂揚식히며、病源或은 病毒에 對한 抵抗物質을 맨들어냄으로써 依하야 病을 治療에 끄러하려고하는것이 現代治療界에 새로운 趨勢로서되여 잇습니다。여름여위와가튼 全身的機能衰弱에 依한 榮養障害는

自體自身의活力

을 昂揚식히는것이 必要한것이옵시다。

이런意味로서、最近 一般家庭에서 널리使用되고잇습니다『錠劑와가모도』는、夏節의 衰弱을 恢復식히려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잇서서는、極히 適好한 藥이옵니다。

이것은 헤ー퀘菌이라고 하는 一種의 微生物의 全成分을 破壞식히지안토록、專賣特許의 方法으로 製劑한것으로서、헤ー퀘菌特有의、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 잇고、身體의 細胞에 活動하야 그힘을 튼튼하게 하는作用이 잇슴으로써、이藥을 먹고 胃腸의 活動이 活潑하게 되는것은、普通의 胃腸藥을 먹엇슬때에는、그意味가 틀니는것이옵시다。

胃腸을 組織하는 細胞의 活動이 튼튼하게되엿슴으로써、消化作用、吸收作用、蠕動作用도모다 活潑하게되며、그리하야當然히食慾이增進되여갑니다

食慾增進삐타민

이라고 불으는삐타민B의含有量의 豊富한데依하야 一層促進되며 恢復을 돕는效果를 볼수잇는것이옵니다。또한 胃腸病、結核性의病弊으로서、夏節의 危險을防止하지안으면 안되실분들에게는、가장合理的으로 進步된常用藥이옵시다。

活動力增進과疲勞防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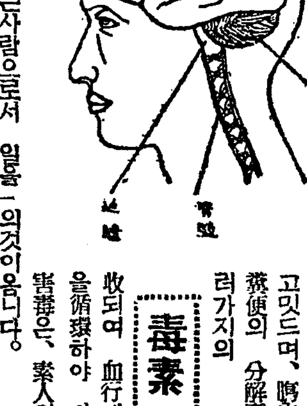
우리들이 [illegible] 以前에는 [illegible] 新陳代謝 [illegible] 肉과血液中의糖分이 [illegible] 活動力에不足을 [illegible] 故로糖分만[illegible] 營養물으로부터 [illegible] 節上에는이것이 [illegible] 알려지게 되여 [illegible] 에는 糖分外에 [illegible] 지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illegible] 습니다。

錠正헤ー퀘菌[illegible] 먹으면、이런大切한 뻬타민B는勿論、人體內에 곳 糖分으로 [illegible]하는구리코ー갠、諸器官을 强壯케하는酵素가 同時에補給되며、活動力增進과 疲勞의防止가 理想的으로되여나가는것이옵니다。

事務家로서注意할 頭腦와排便

恒常頭腦를쓰는사람으로서 일을 착착整理하야 能率을 百퍼ー센트로 發揮하는데는、엇더케하면 조흘것입가——?

세면세밀수록 여러가지가 잇겟지만、生理的으로보아、가장緊密한關係에잇는것은 무엇보다도 通便이 업스면 머리의 調和가 낫버지는것은이미 여러분中에서도 切實이 經驗한일이 어서스리라고 잇드며、腸內에 停滯한 糞便의 分解産物로부터 여러가지의



毒素

가生하며、이것이 吸收되여 血行에들면、全身을循環하야 비로소生기는 害毒은、素人의 想像以上의것이옵니다。

血管의 硬化를促하며、早老와腦溢血의 誘因이되며、蕁麻疹、皮膚等도惹起하는일이 만흐며、류마치스、神經痛、痔疾、其他의便秘로 부터 直接間接으로 誘發되는 病의種類는 만치만、頭腦를 쓰는분들에게 잇서서는 腦神經에 미치는 障害가 가장顯著한것입니다。

그리하야 事業家는 어떠한方法으로라도 通便을 每日 整齊잇게하지안어서는 안된다。되는대로 瀉劑를 每日 쓰는것은 퍽 考慮할바이옵시다。現在 下劑로서 使用되고 잇는것은大槪

習慣

性이라고해서、每日먹게되면、그에 따라習性으로써効가업게되며、分量을더하든가、藥을바꾸든가하지 안으면動가나지안는 性質이 잇습니다。또는 刺戟性이 잇서서 腹痛을이르키는일도 잇습니다。

그리하야 近者에는『錠劑와가모도』가 事務家사이에 愛用되고 잇습니다。이『錠劑와가모도』는普通下劑와는 全然 그 成分을 달이하고 잇슴으로서、通便을 正하게 하는것은、이藥이 持續한 여러가지의 效果中의 그하나에 不過한것이외다 要컨대胃腸의機能을整齊하며 腸管의運動을 適當하게營爲하는 結果로서 自然히 通便을지게함으로써 거기에는何等의無理가업는것이 特徵입니다 그러한 事務家에게는 다시조흔 結果로서 頭腦의

榮養

素되는 여러가지의 燐酸化合物과구리코ー겐、누구레잉等을含有하여 잇슴으로써 頭腦의 消耗를 補充하는일도되며 또는頭腦休養에 必要한睡眠을주는 效果도잇스며 또는胃腸의藥으로서 運動不足으로부터 일어나는 消化力의 減退를補充하는作用도 가지고잇슴으로써 여러가지意味로서『錠劑와가모도』는 事務家에 常用되는藥이옵시다。

이『錠劑와가모도』는 東京芝公園大門際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五圓、하로에몃錢 안되는 廉價로서 藥價를利用하야、效果에疑問되는 類似品을 勸하는藥店도 잇슴으로써 注意하시라。

二年隔越한 大腸가타루가輕快 只今은나의專任醫

(高田) 室田勇

中學時代三、四年頃부터 脚氣로 苦痛밧으면서、卒業은하엿지만、身體는 퍽 衰弱하야 그後 三年間은 身體恢復때문에、꼼작못하고 家內에잇지안으면안되게되엿습니다(中略)

그런데、身體의調和가 좀도다오게되면、봄철만닙새옹(芽)처럼、다시 向學熱이 일어나 ×高等學校理科에 入學하엿습니다。

(中略)牛肉을 過食한것이原因이되야 甚한 泄瀉를하야、急性大腸가타루의 診斷으로서 N、M病院에 入院治療를밧게되엿습니다、그때에는 곳 快癒되엿습니다 (中略) 三次에는 重症이 되여버렷습니다。

(中略)나의 身體은 日增되틀리하여갓습니다。이럭저럭 一年이 나지낫습니다。經過은以前보다 惡化할뿐이고 好轉할傾向은조금도 보이지안코(中略)

엇던날、나는『錠劑와가모도』의 廣告를 發見하고、失望中에도一縷의希望을띄고服用하엿습니다。그리하엿더니 안인게아니라、身體의機能이好轉되야 마음이明朗하여젓다、따라二年六個月의 臥床生活도곳내여버렷습니다。

그後錠劑와가모도는나의專任醫로서 손에서떼인때가 업습니다。(後略)

腸チフス 絶對無害·內服豫防劑 注射不要 ヘチロゲン (一人分用錢) 世界的發見 類似品이잇스니 ヘチロゲン이라고指名하라 東京市芝公園·同仁製藥株式會社

李光洙全集

그 女子의 一生

處女篇 / 戀愛篇

定價 一圓二十錢이나 九月末日까지 特價提供
特價壹圓 外地留送料十八錢 注文必先金
總頁數 四百頁
金文字入豪華裝禎
春園寫眞及筆蹟
美麗紙函에 入
이만치 아름답게 된 裝幀은 朝鮮서는 처음임을 자랑합니다

特價一圓

社會人士絕讚의 辭

功績이 許多 前新幹會長 許憲

春園은 東京留學生時代부터 朋輩間에 예던 才子란 일홈을 드럿고 그뒤 成은 新聞社로 雜誌社로 學校로 도라다니는 사이에 小說과 論文을 써노흔 세마다 一世의 注目을 끄으러 왓스니 그의 才分이 非常함을 누구나 알수 잇나이다. 엇잿든 春園이 社會에 준 影響도 不無하겟스나 一面으로 그 功勞도 크게 讚揚할 바 잇는 줄 압니다。

社會에 끼친 足跡 巨大 東亞日報社長 宋鎭禹

春園이 朝鮮社會에 끼친 足跡은 非常히 巨大합니다。그는 지금부터 二十年前 草創期의 이땅 文壇과 評論界에 先驅者 中 한사람으로 나타나서 만흔 애를 썻습니다. 그 勞力은 多數人士가 이저지지 못할 것으로 밋습니다. 그의 特徵은 文章이 남다르게 流麗하고 燦爛한 點에 잇습니다 여구나 小說에 잇서는 그의 才筆은 만흔 青年男女를 醉케 합니다。

世界的 作家에 比肩 金東仁

이제 그의 政治、社會、文化、藝術等 各方面에 二十年동안이란 긴 歲月을 두고 써오든 散佚된 收穫을 全部 거두어 全集을 發行한다하니 깃분일이다

人道主義와 五道踏破記 安在鴻

마음 노코 우리의 대중에게 권할수 잇는 소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 그의 것을 들기를 결코 주저하지 안는다. 거기는 독자를 끄으는 흥미가 잇고 그러면서도 ... 훈(無言訓)이 숨어 잇고、그러면서도 ... 가정에 부치기 ...

나는 五道踏破記를 가장 感銘이 깁게 ...

○偉大한 文豪......玄相允
○永世不滅의 功績......尹白南
○春園의 再認識......鄭寅燮
○文壇의 盛事......金偶元
○青年大衆의 精神的 糧食......金昶濟
○語文運動의 先驅......李泰俊
○絕讚할 紀行文......金炳魯
○大春園의 全貌......張赫宙
○朝鮮文化의 盛事......金尙鎔
○數萬頁의 巨大한 量......朱耀翰
○落花岩의 作曲......金永煥
○오직 讚歎이 잇슬 뿐......朴花城
○新文學의 先驅......梁白華
○文彩 流麗......金用茂
○내가 본 春園......田榮澤
○描寫卓越三昧......韓龍雲
○春園의 詩歌......金岸曙
○新文學의 祖......朴八陽

春園과 朝鮮文學 玄鎭健

朝鮮의 現代文學은 春園에서 始作하야 春園으로 扶持해 온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小說이 무엇인지 文字부터 理解하지 못하면 아득한 옛날 ... 時代부터 오늘날까지 그는 쉬지 안코 ... 작품을 내여노은 것이다 ...

文化進步와 出版 朝鮮中央日報社長 呂運亨

한 나라 한 民族의 文化가 興旺하라면 그 社會에 큰 人材가 만히 야하고 따라서 出版文化가 크게 進步되여야 할것이다 ... 이제 三千里社에서 春園全集을 發行한다하니 이러한 點으로 대단히 깁버합니다

春園의 大를 알려거든 廉想涉

春園의 作物에 接할제 어느덧 그의 魂의 眞正한 소리를 들을 것이요 그의 魂의 眞正한 소리와 그의 生命의 고동을 들을 것이다 ... 나는 春園을 여긔 바치는 이 말로 ...

눈물의、最大悲劇의 小說

朝鮮日報에 連載되야 天下百萬 讀者의 눈물을 짜내든, 애닯은 佳人薄命哀史!
애닯은 金鳳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니며 漢江水되고 한숨은 모아 東南風된다

第二回配本 印刷中分

今秋發賣豫定

同業者엔 割引規程送
一冊特價一圓 外送料十八錢
十冊1時拂9圓50錢送

規約
▲會期...全十卷、隨時發行
▲體裁...各卷四六版約三百頁乃至四百頁用紙上製 裝禎優美
▲拂込方法...本社振替口座에 拂込하시압
▲入金...不要합니다

京城鐘路 三千里社
振替京城二九四九
電話光化門一三四九

李光洙全集內容 (第一期出版發表 主로 未刊行物集)

第一卷 政治論文集『民族的經綸』 (主要內容) 論文「民族的經綸」、「民族改造論」、新聞社說一事一言、相爭의 世界에서 相愛의 世界에、尹致昊李商在等人物評論等等
第二卷 『文學評論集』 (主要內容) 中庸과 徹底、文學講話、人生과 藝術、프로文學과 뿔文學、文學에 뜻을 두는 이에게、朝鮮文學의 定義、文藝瑣談、民謠小考
第三卷 長篇小說『그 女子의 一生』 朝鮮日報連載中의 處女篇 戀愛篇
第四卷 長篇小說『그 女子의 一生』 朝鮮日報連載中의 結婚篇 悔恨篇 放浪篇
第五卷 短篇小說集 短篇小說 어린아츰、嘉實、『어떤 兄君에게서 온 便紙』 이밧게 新作數篇
第六卷 長篇小說 千眼記 東亞日報에 連載하엿든 長篇千眼記와 또 中篇革命家의 안해『거룩한 죽음』
第七卷 戲曲集 新作戲曲三篇(未發表分)「殉敎者」톨스토이 原作『어둠의 힘』 쎅스피어原作「씨사」
第八卷 詩集 新作、詩、時調百餘篇及 워-드、워즈譯詩 其他譯詩集
第九卷 紀行文集『내 半島江山』 五道踏破記、金剛山遊記、多島海紀行、唐浪遊感、上海에서 滿洲遊記
第十卷 自敍傳 새로 自敍傳을 執筆하는 外에『人生의 香氣』『東京留學生時代의 日記』『隨筆集』『日記』等等

朝鮮名作選集

待望의 此書九月十五日發賣 定價一圓 郵料二十錢
京城鐘路 振替京城二九四九 三千里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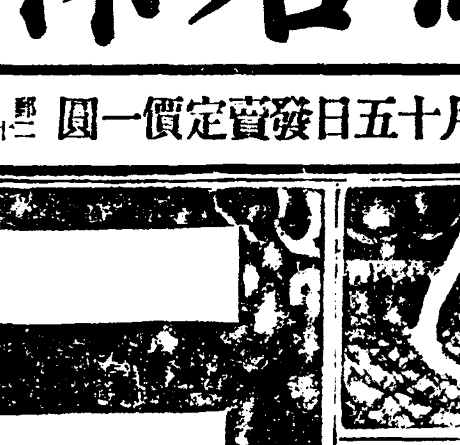
詩歌・二十六作家
봄 달잡이......朱耀翰
가신님......鄭寅普
故鄕의 노래......金岸曙
金잔듸......金素月
가곱하......金殷相
海曲三章......梁柱東
放浪의 北京......吳想殉
밤車......朴八陽
봄비......曺雲
會館압헤서......金八峰
高句麗城址......金石松
갈매기......鄭芝鎔
나의 寢室로......李相和
郡論......朴月灘
탄식......金明淳
당신의 편지......韓龍雲
봄잔듸밧......趙明熙
論介......卞樹州
新願......盧春城
새들이우리들으오......金起林
안옷의 新願......毛允淑
물네방아......異河潤
石庵......金秉岐
나는王이로소이다......洪露雀
옵바와 火爐......林和
松花江배人노래......인파

小說戲曲・二十四作家
鬼의 聲......李人植
가실......李光洙
林巨正......洪命憙
檢事局待合室......廉想涉
배따라기......金東仁
흙의 洗禮......李星海
산양개......朴英熙
B舍監과 러브레타......玄憑虛
뽕......羅稻香
[illegible]......田榮澤
脫出記......崔曙海
故鄕......李箕永
山家......李無影
十五分間......金雲汀
大盜傳......尹白南
附房悲曲......崔獨鵑
講師와 丁敎授......兪鎭午
洪水前後......朴花城
세뜻......張赫宙
꽃나무는 심어노코......李泰俊
豚......李孝石
어미와 딸......張德祚
老총각......方仁根
傷痕......韓仁澤

好評再版

平和와 自由 安昌浩等六十氏論文集 價一、〇〇 送料十八錢
詩歌集 李光洙、朱耀翰、金東煥合著 價〇、六〇 送料四錢
小說、評論集 朴英熙著 價〇、三〇 送料二錢
紅焰 崔曙海著 價〇、三〇 送料二錢

三千里



九月號 文藝社募集內規呈
定價三十錢 半年一圓七十五錢 一年三圓四十錢 注文은必先金
京城鐘路 三千里社 振替京城二九四九

全東洋을 震撼식히는 政變戰火

★北中、外蒙......金璟載
★伊、에危機......洪陽明
★比律賓進路......安炳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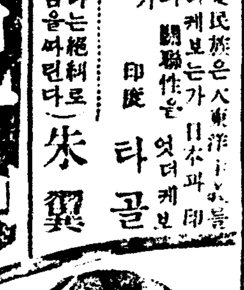
印度民族은 大東洋主義? 日本과 印度의 關聯性은 엇더케 보는가 印度 타골

日本은 東洋의 힘인가

晉專學園의 神聖과 獨立性 (財團도 普專本位로 確立하라는 絕叫로 그 熱々한 主張이 時人의 가슴을 써린다) 朱翼

金鑛・株式으로 巨富된 幸運兒列傳

아츰에 룸펜이 저녁에 百萬長者되고、어제 阿房宮이 오늘 草家집으로 化하는 것이 金鑛과 株式판일이라 崔昌學、方應謨、金台原、柳泳燮 其他諸 十萬圓 百萬圓의 興亡盛衰에 노든 사람의 歷史를 여기에 적은 稀有의 記事



曺晚植、許憲、金明植、薛泰熙、元容常、金恒圭、安在鴻、尹益善、金敬載、裵成龍、李仁、朱翼、金昶濟、李高根、徐廷禧、李克魯、咸尙勳、朴昌煦

我觀 [illegible] 二人物

「모스크바의 新文化」座談會
옛날의 俄皇城과 지금의 모스크바는 엇더케 變하엿든고、여기 모인 諸氏는 모다 莫斯科에 在留多年한 분만 모혀 新文化를 語하다

全鮮網羅한 和信連鎖店主會

初代 大統領 比律賓 現在 大統領候補

高僧雜感......金泰洽

詩歌 述懷......尹益善

★約婚時代에 許身함이 罪인가
□絕對로 純潔을 직히자......盧天命
□理智로 깨끗하게......朴仁德
□貞操는 직히나마나......崔善福
□許身과 結婚의 危險......朴承浩
□許身과 肉體의 變化性......鄭錫泰

名作梗槪
삼포......쌔룻엘 原作
愛와 死의 作亂......로맨로랑 作
로미오와 쥬리엣......쉑스피어 作

映畵解說
색시의 湖水......하렘 原作
푸란다스의 개......위-다 原作

上海映畵
姊妹花......上海明星公司作
漁光曲......上海聯華公司作
歡喜寃家......天一影片公司作
女人......藝華公司作

江건너村 (朝鮮映畵)......羅雲奎 作

書報特輯 寫眞 春香傳

드른風月記 兩社長不睦眞相 金若水과 兪鎭熙 李光洙과 兪億兼
短彩錄
楊柳公子 尹致昊式으로 現代諸名士를 品騰한 名句集

□나의 交友錄......安在鴻
★雄渾스런 民族性과 朝鮮......朱成雲
★學都五山의 施設과 人物......金起鴻

大高句麗의 文明......金明植

赤手空拳으로 商界서 成功한 분들

★銀行事務員으로 前東亞百貨店主된 崔楠氏
★客主집거관으로 印刷書籍界巨人된 盧益亨氏
★빈주먹 三十年만에 圖成社主된 朴品鉉氏
모다 주먹만들고나서 오늘 수만원의 성공을 한 눈물거운 기록들이다

青春寡婦된 新女性

一代佳人들로 그만 靑春에 홀노 난에 記錄

特別寄稿
엇더케 하면 오래 살가......獨逸醫學博士 鄭錫泰
肺結核을 엇더케 고칠가......醫學博士 尹治衡
秋節의 健康과 醫藥......醫學博士 朴昌薰

印度騷擾 (大戰時 獨帝가 활약한 秘史)

佳人의 失戀血淚記......女流詩人 金明淳篇

일즉 本誌에 連載中이든「美人薄命哀史」는 歡呼裡에 쏫을 매치고、이달부터 佳人의 失戀血淚記를 싯습니다. 아마 이 슬픈 記錄은 만흔 이를 울녀 넘길것이 외다

京城建物評......朴吉龍

□人氣歌手 崔南鏞의 藝術과 私生活
◇十大歌手人氣投票決選發表
□人氣歌手 姜石燕의 藝術과 戀愛
서울美容院에 모히는 美人群像 (鐘路韓靑빌딩 美容院의 光景으로 서울사치꾼 아가씨의 百態萬象)
□和蘭女王의 私生活은 엇더한가?
□에듸오피아의 皇室 이일저일 이약이?

野談 男便이여 寬大하라......申不出
人과 寶石 반지......木佛生

(機密室)
1、上海事變의 日中戰死者
2、時中會員中有力人調査
3、安島山의 假出獄滿期
4、最近各新聞紙의 發賣部數
5、天道敎徒의 實數調査
6、改造社長은 엇재 작고 오나
8、東亞日報의 增築은 今秋부터
9、和信連鎖契約 七十萬圓

春香傳을 撮影光景
鄭勳模女士 吹込光景記

豊滿한 清秋文壇

廉想涉......(感想) 蓮쏫구경
朱耀翰......(詩) 思友
田榮澤......(感想) 獨語錄
李秋湖......(感想) 집이야기
金岸曙......(譯詩) 나이두詩篇
金東曙......(遺稿) 小曲三篇
金素月......(評論) 春園研究
梁白華......(戲曲) 荊軻
羅稻香......(小說) 물네방아
金起林......(詩) 奇蹟
朴月灘......(紀行) 靑山白雲
梁明......(評論) 우리民謠
金東煥......(民謠) 不勝淸怨

黑奴의 悲歌 李光洙

검둥이들의 슬픈 기록을 유려하게 譯한것이 이 名作品이다

百萬長者의 百萬圓觀

무엇때문에 돈은 버으는고 돈이 이세상에서 제일인고 富豪의 事業觀、人生觀、黃金哲學 等々 括目할 記事
金性洙
朴榮喆

經濟解說 國際爲替動搖 磅貨低와弗貨高

申泰[illegible]

그동안 顯著한動搖가업시 小康狀態에잇서오든國際間爲替는 數日前으로부터 米英크로스의 動搖가 생기고 이것이 繼續되야 오늘의入電에는 大幅低落을 報하고 딸러서 米日爲替도 卄九弗臺崩壞를 內包하는 暴落을 나타내여 다시 물들리기 시작한다 이로써國際爲替界의 動搖가 再次展開될것으로 볼것이가 함이 새로히 注目을 끄는點이다

×

今年上半期中을 通하야 歐洲金本位뿔럭崩壞의念慮는 世界經濟界를 壓迫하고 同時에 이로서 國際爲替界를 混亂케할것가튼 不安을 띄엿든것이다 그러나 佛國이 極力 金本位의 維持에 對策을 다쓰는 總注力으로 一般의 豫想과 反對로 그崩壞에 압입하고 더구나 最近의 情勢에는 佛國은 勿論 和蘭、瑞西의 諸國이 모두 金本位維持의 對策에 成功하야 目下는 小康狀態에 잇는터이다 그래서 世界經濟界에 加하라든壓迫은사라지고 딸러서 國際爲替는 動搖의 念慮로부터 安定域內에 드러가 伊太利와獨逸과 가튼二三의 例를 除하고는 거의 無風狀態로 數日前까지 잇든것이다 이러든것이 突然 米英크로스의 低落 이것을 다시 말하면 弗貨는 빗싸 지고 磅貨는떠러젓다는것이다 그落勢가 더욱顯著케되야 이波動은 米日爲替까지 밋처서 結局에는 國際爲替가 다시 動搖의嘆이 잇게 되엿나라는 不安이 濃厚케 되엿다 그런데 米英爲替는 무슨까닭으로 急落을 招致케되엿는가 함에는 다음과가튼 事情이 잇다

×

▲첫재로 英國의磅貨價値가 떠러지는것은 被動的이 아니라 自動的理由가 만타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目下世界의 注目을 끄을고잇는 伊太利「에티오피아」의 兩國間形勢가 險惡化하고 이에잇서 利害關係가 密接한英國도 그渦中에 드러가고말라는形勢에잇다그럼으로伊에兩國紛爭에對한 國際聯盟의 空氣에對하야 最近悲觀하는傾向이 만케되고 딸하서 英國의 磅貨에對한 不安의念慮가 생기는同時에 英國에 잇는金은 英國을 떠나조차 安全한地帶를 차저가게되는結果가 생겻나

▲둘재로는 이와가티 英國의金貨를 不安視하고 一面으로 英國으로부터 流出되는 金은 世界經濟를 通하야 安全한곳으로 向케되는바 이런곳을 끌호라고하면 오늘에잇서서는 米國을 들게된다 이것은 왜!그러냐고하면 最近米國財界는 顯著히 好轉되고 또一面으로 通貨健全化를 圖하고잇는마큼 自然 米國의弗貨價値는 上向케될形勢에잇는 이때에 磅貨에 對한 不安이 생겨 結局에는 米國으로 金이 流入케되는 結果를 나타내이게된것이다

×

그럼으로 오늘에 國際爲替를 動搖케하는 主因의 磅貨低、弗貨高에잇서서 磅貨는 自動的事情이 만코나 弗貨高라는 被動的理由가 不無하며 또弗貨도 自國經濟界의 好轉이란理由와 磅貨不安이란被動的事情으로해서 米英크로스의急落이 나타나고 만것이다 그러고 米日爲替가 暴落케되것은 米英크로스의 急落에 끌리여 되것으로 볼수박게업다 이것을다시말하면 弗貨價値가 노파지는 反面에 圓貨價値가 떠러지는結果가되는것으로 五日에米日爲替 實卄九弗十七仙을 가지고 日本돈 百圓과 바꿀수잇든것이 六日에는 卄九弗十七仙에서 十二仙을 떼내노코도 日本돈 百圓價値에 該當케된다는것을 意味한것이다

×

그러면 將次 이 國際爲替動搖가 어떠케 展開케될가함은 國際政局關係의 動向을 짤어서 左右될이 만흘것이다 그러니 가령 압흐로 國際爲替動搖가 激化될 境遇에는 英國의 金流出增、米國의 金入增의 結果가 甚大케될것갓고 또는 이로 因한 日本의 影響은 아주 말키 어려우나 大體로는 輸出增 輸入減의 作用을 促進케할것이지만 目下日本은 對米生糸輸出이 一段落告하고 돌리혀對米棉花輸入期에잇는마큼이로因한影響이念慮되지안흘가한다

伊『에』紛爭으로爲替市場混亂
正金의日米爲替 二十九弗臺崩壞
米日爲替十二仙暴落

【東京電話聯合】連日軟調의米英크로스는 七日入電에 依하면 又復 四弗九十三仙八分三으로四分三個가량 下押되야 이에作하야 米日도 一擧十二仙低의 二十九弗〇五仙으로되엇다日本內地市場은 軟勢含으로 正金은 對米엑센지레트를 一포인트引下하야 二十八弗四分三으로 곳치어 今年六月二十四日以來의 低價로 下落하얏다 이로 마-켓트는 드듸어 寄附에 今月二十九弗丁으로 조금식잇섯스나 그後 關西方面과 棉花의 買附가相當히 잇서 二十九弗丁는 買唱으로 變하얏다는 報에 急角度로 軟化하야 今來月 二十八弗八分七의 各賣에 對하야 今來月二十八弗十六分十五年內二十八弗八七分의 各賣에對하야 今來月二十九弗十六分一、年內二十九弗丁의 各買로前日引價에 比하야 一포인트半低를 示하게되어 드듸어 二十九弗臺割을 演하게되엇다 그러나 引價는 特殊側이 今月은 二十九弗로 買가 나타나 幾分引戾한 觀이 잇서 一方對英도 年內一志二片三十二分三厘에 對하야 同八分一乃至三十二分五로 레잇트는 保合이나 氣配兩含으로 一般으로 對米對英모다 輸入側의 商談一巡한 傾向이업지안흐나 銀行側은 僅少한것에 對해서도 카바-하는 關係로 레잇트가 決定되지안허混沌한形勢를示하고잇섯다

歐洲市場에서弗買 米英『크로스』大幅軟化

【뉴욕六日發聯合】六日의米日爲替는前日에 比하면 實二十九弗五仙으로 十二仙低이오 買二十九弗三仙으로 十一仙低이엇다

◇東京爲替(七日)

對米	賣	二十九弗
	買	二十九弗十六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大阪爲替(七日)

對米	賣	二十九弗
	買	二十九弗十六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八分一

【뉴욕六日發聯合】뉴욕外國爲替市場의 弗高와 磅貨低의傾向은 一、兩日來 顯著하야 六日米英크로스는 다시一仙四分一이大幅軟化하야 四弗九十三仙八分三으로 되엿다 米日爲替도 亦是이에伴하야 十二仙低의 二十九弗五仙으로 떠러지고二十九弗의關門이 危殆한 一面弗貨의續强調로 歐洲大陸向爲替도 小幅이나마 引强하얏다 弗貨의 强調는 季節的需要增大의 影響도 잇스나 伊에 紛爭의念慮로 歐洲市況의 弗買도 一因으로 되어잇다 今後歐羅巴로부터 米國資金의 移動이 다시增加할것이라는觀測도 생긴다

倫敦金塊續暴騰

一匁換算十四圓四十二錢 反騰步調이던 倫敦金塊는 六日(七日入電)에 一온스 七磅〇志十片으로 暴騰되어 日貨換算(朝銀建値對英 一志二片八分一)一匁十四圓四十二錢이엇다.

臺灣諸銀行 預金利子引下

臺灣島內의 各銀行에서는 七日부터 預金協定率을 一齊히 引下하야 定期甲三分九厘、乙四分一厘로하얏다 이와同時에 從來에 甲乙輔開四厘를 二厘로 減少하얏다

尼崎協定參加希望

尼崎汽船은 阪神荷主對朝郵商船의 朝鮮米積取協定에 參加希望을 荷主側에 申出하얏슴으로荷主側에서는 目下의 諸船에 對하야 協議中인데 結局朝郵商船과의 交涉이 正式으로 決定되기까지 態度를 明白히하지 안기로되엇다

資本金二百萬圓 煉炭合同進捗

京城、平壤의七社參加

急速히 進展한 煉炭大合同은 參加當業者의 評價 그他의 準備工作도 一瀉千里的으로 進捗되야 드듸어 來九日 總督府에서 第一回協議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다 合同新會社는 資本金二百萬圓(그中現物出資五十萬圓現金拂込二十萬圓)의 豫定이고 社名은 朝鮮合同煉炭會社로될模樣이다 그리고 新會社에 合同參加는 ▲平壤 東拓鑛業煉炭工場、新朝鮮朝日煉炭、平壤煉炭工場、大同煉炭工場 ▲京城 昭和煉炭工場 宮尾煉炭工場 齋來煉炭工場의 七社로 現在朝鮮의 煉炭生産十八萬六千噸의 판치煉炭에서 海軍並日鐵을 除外한 全部로 現生産能力은 年十一萬噸이다

夏秋繭取引市場

農林局發表

(生繭一貫匁當)

	高價	低價	買眮	掛目
孟山(白)	—	—	三、五五	三、五五
順川(同)	三、四五	三、四五	三、一〇	三、一五
禮山(同)	三、五一	一、九〇	三、四一	三、一〇

手形交換高에나타난 十年間財界推移
昨年一躍十三億一圓 今年은一層躍進?

一般財界의 消長을 反映하는全朝鮮手形交換所 昭和元年以後十年間의 手形交換高를보면 元年부터 五年에 이르든 五個年間及八年은 各十一億萬圓 內外를 往來하야 財界의 平衡을 示하고잇든것이 六、七兩年에 이르러 俄然八億萬圓臺로 激減하야 財界의 不況時代를 現出하고 다시 昨九年에는 一躍十三億萬圓臺의 新記錄을 作하야 財界의 好轉을 示하고잇다 累年別은如左하다(單位千圓、十年은上半期、)

年次	枚數	金額
昭和元年	三、三三六、三三四	一、[illegible]
同二年	三、三〇三、三三三	一、〇五〇、二〇八
同三年	三、四三二、一五四	一、一八一、〇三〇
同四年	三、四一五、四〇六	一、一三八、一三五
同五年	三、一七六、六三〇	一、〇〇一、二五一
同六年	三、〇八四、六五五	八三二、〇一九
同七年	三、一三一、八五一	八五五、七六六
同八年	三、一六九、九〇八	一、〇〇九、九五五
同九年	三、六六七、九〇〇	一、三〇四、八五三
同十年	一、三三〇、四〇四	七六八、三二四

그리고 昭和十年은 上半期中에 이미不況時代의 六、七年에 比肩하야 過去十個年間의 最高인 九年의 半額以上에 達하야 今後財界膨脹、金融繁忙의 下半期를 合하면 一躍朝鮮最初의 最高記錄을 示하리라고 豫想된다

京城手形交換推移

京城府內의 手形交換高를보면 如左히 全朝鮮交換高와 거이 同様의 足跡을 보이어 昭和元年부터 五年까지와 밋八年은 六億萬圓臺乃至七億四千萬圓臺、同六、七의兩年間은 財界不況을 反映하야 四、五億萬圓으로 激減하고 昨年九年에이르러 一擧八億萬圓臺를 突破하얏스며 다시 十年은 上半期中에 이미 前年의 半額以上에 達하야 全朝鮮 그것과 가티 下半期를 加하면 當然最高記錄을 示할것이다

(單位千圓=十年은上半期)

年次	枚數	金額
昭和元年	一、二三六、九三[illegible]	六六六、[illegible]
同二年	一、三三〇、二三三	六六八、八三二
同三年	一、三三三、七四四	六六七、六七七
同四年	一、三六六、〇四四	七四七、七四四
同五年	一、三八〇、〇〇〇	六九八、七四一
同六年	一、〇六四、一二四	四七七、〇八〇
同七年	一、一三六、九三六	五八八、三九三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一、三八六、〇七二	八六二、八三四
同十年	六六九、七五六	四六一、〇九一

不渡手形 最高昭和五年
好況時에만흔

不渡手形發行數의 多寡는 반드시 財界의消長과 併行치안코 오히려 好況時代는 取引關係의 膨脹으로 만코 不況時代는 減少한다 即昭和二年以降京城及全朝鮮手形交換所의 不渡手形數를보면 昭和五年의 京城卅一萬圓餘 全朝鮮 七十三萬八千餘圓을 最高로 六、七兩年의 不況時代에는 漸減하고 同八年은 京城十四萬二千餘圓 全朝鮮卅八萬六千餘圓의 最低를 示하얏스며 財界好轉의 同九年은 외히려 京城卅一萬三千圓 全朝鮮五十七萬六千餘圓으로 增加하얏다 即累年別은 如左하다

▲京城手形交換所 (單位千圓)

年次	枚數	金額
昭和二年	八四一	二七一、[illegible]
同三年	七三七	二〇〇
同四年	六〇〇	二〇五
同五年	八〇六	三一〇
同六年	八〇六	二六九
同七年	七二一	一九五
同八年	五〇三	一四二
同九年	五三二	三一三
同十年	二九六	一八〇

▲全朝鮮手形交換所

年次	枚數	金額
昭和五年	一、六〇二	七三八
六年	一、六〇八	六三二
七年	一、七〇四	六〇五
八年	一、三四四	三八六
九年	一、八二八	五七六
十年	八〇九	三二一

(以上十年은 모다上半期中)

對米輸出品 原産地標記
Japan 記入은拒絶 米國領事館서通知

京城駐在 米國總領事館으로부터 今回 京城商工會議所에 對하야 對米原産地標記의 變更에 對한 通知가 잇섯다 한다 從來 朝鮮으로부터 米國에 輸出되는 商品에 Japan 又는 Korea 라고 標記한것은 輸入을 拒絶되엇든바 今回 米大藏省으로부터 Chosen 又는 Korea 라고 標記한것은 輸入을 許可하기로 變更되엇다 但 Japan 이라고 記入한것은 依然 拒絶된다

株式 保合 形勢傍觀

前場保合 休日을압둔 今

商況[七日]

▲簡保八月業績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八月中의新規契約數는 日本內地人四千二十三件、朝鮮人一萬三千六百二十一件 合計一萬七千六百四十四件이오 八月末現在의 契約總數는 七十五萬三千七百件、保險金額一億三千九百九十六圓에達하얏다

投機時機未到 東新의弱氣觀

米國株高、生糸高、東部妥協、增稅中止、中國問題好轉、金融大勢緩慢、에디오피아戰爭等 好材料가 累積하얏섯슴에 不拘코 東新이 十六圓高도 못된은 웬까닭이냐? 要컨대 七月末의 東京短期는 三十四圓五十錢을 下廻하고서 下放될것이라는 弱氣觀이잇는데 지금은 投機時代가 아니오 投資時代로서 東新은 整理問題로서 嫌氣가 招致되며 또한 投機를可能할時機가 未熟하얏스니 東新에對하야 弱氣觀을가짐도 無理가아닐가한다.

伊에不戰이면 失望市勢出現

伊에紛爭은、復雜微妙하야 單純히 第二次歐洲大動亂을 꿈꿀수업고 米國의 景氣도 微溫的으로서 生糸千圓時代는 容易히올것갓지안으며 對露外交의 不徹底、北中經濟提携 實効期待難인데다가 內로는 明年度豫算에 對한 高橋藏相의 態度가 强硬한것으로 東部와의 折衝이 어늬程度로될지 그前途가 重視되며 인푸레 市勢의希望도 적고 株價自體로도 大體에잇서 過落의訂正을 맛치엇스니 이以上 上進에는 背景의 後援이잇서야할 것으로서 萬一伊에 開戰이업다면 失望市勢를 보일지도 모르는 情勢이엇다.

鐵道收入依然黑字

八月中의 鐵道局의 運輸成績은 如左하야前年에 比하면 貨客收入合計七十三萬五千餘圓의黑字를示하고잇다(單位圓)

旅客收入	二、二二九、九九八
貨物收入	一、七五七、二〇四
合計	三、九八七、〇九二

그리고 收入一日一粁當平均四十七圓十五錢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圓五十七錢의 增加이다

西朝鮮地帶 棉花間作有望

棉花計畫과同時에 西朝鮮地帶의 棉作에對하야 麥間作實施는 總督府에서도 西朝鮮農試及 關西支場에서 研究中인데 特히 麥間作品種을 選定하야 昨年度부터 試栽하엿는데 昨年은 天候不良으로 後期의 成績을 엇지못하엿스나 今年의 試栽成績은 黃海道 平南이자못 順調이어서 西鮮地帶에잇서 從來不可能하다고한 麥間作은 技術的으로 可能한것이 確認되엇다 引續하야 明年度부터 右栽培를 普及하야 主로 經濟的見地에서 研究調查하기로되엇바 右西朝鮮의 麥間作成功은 棉花計畫의 段期的收穫이라하겟다 麥間作의 結果는 아직正確한 調查가 되지못하고 잇는데 總督府中山技師의 觀察談에依하면 黃海道가 好績이고 麥收穫 百五十斤으로 平南은그보다조금못한便이다

殖産契令實施로 金組의勢力膨脹

朝鮮金融組合員數는 百卄萬人 組合職員은 四千人에 達하는데 今回 殖産契令實施에 依한 事業部昇格에 伴하야 增員되어 農家經濟更生十個年擴充計畫과 相俟하야 今後組合事業은 益益膨脹大化하려고 하고잇서 벌서 全朝鮮各金融組合에서는 組合의 職制改正、待遇改善並組合員保險制度의 確立及組合職員子의 教育機關整備等을 부르짓게되어 當局에서도 緊急問題로보고 目下對策을 研究中이다

棉花輸入激減

【大阪電話聯合】昨年九月以降今年八月末에이르는 一個年의 日本棉花輸入高는 三百八十萬三千五百二十一俵로 前年度에 比하야 三十七萬六千九百十三俵의 激減을 示하얏다 特히 米棉은 米國政府의 市價引上政策의 影響을 受하야 著減하고 印棉메루-棉은 激增하야 昨年度의 日本棉輸入의 王座를 占한 米棉은 印棉에 그地位를奪取되엇다

倫敦金塊暴騰

今日入電 米日爲替는 二十九弗五仙으로 一擧十二仙의 暴落이다 爲替低는 何等의 感應이업섯다。伊에紛爭으로 歐洲市場의 弗買가 主因인모양인데 根本問題인 伊에가 어찌될지모르는대로에 形勢傍觀인 모양이고 倫敦金塊는 七磅〇志十片으로 續騰步調이나 이것도 無影響이엇다。

米日爲替昌暴落

前場은 依然保合商狀으로서 前日後引에 比하야 東新十錢高인 百四十二圓丁 日産十錢高인 七十六圓九十錢 大新不變인 八十七圓三十錢 朝新二十錢低인 二十五圓六十錢 帝人百二十三圓丁에 各大引되고 日魯五十六圓丁 拓新十圓四十錢이잇섯다。

後場休會

後場은例休인데 大阪短期 氣配가 鍾新五十錢低를비롯하야 一齊軟調이엇슴으로 當地氣配도 不勢이엇다

期米 颱風念慮暴騰
仁川先限卄八圓突破

前場續强 昨後場 阪地卄九圓八十六錢止와共히 卄七圓七十四錢에 場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卄九圓八十六錢인 昨止同様의 報를擔하고 卄七圓六十八錢인 六丁低로場始한後 阪地九十五錢으로 返戾하엿다가 九十二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結局 八十錢의最高로場을止하엿다

後場暴騰 後場은 二十七圓九十錢에 十丁高로 始場後 三期爆發하야 二節中限 二十九圓九十九錢 先限二十八圓〇七錢에 暴騰이고나서 四節先限 二十七圓九十八錢에 反弛이고 別關가 止場하다

市勢又復一高
當限만은伸惱

昨後場부터 各地市勢는 依然活氣를帶하야 又復 一高를示하엿다。仕手의關係에잇서서는 兩來 硬派의主力側이든 田中貞一派는 弱氣로 豹變된한편 新進硬派인 馬越一派가 猛烈히 買進하야 田中貞과 對岐되엇스며 累月以來 態度를變치안코 一貫的方針을 取하여오든 山種一派와 高橋一派가 또한 相對하야 兩方의 勢力이 莫上莫下로되어 잇다 그러고 쌀의 情勢에잇서서는 朝鮮稻作은旣히 平年作으로 發表되[illegible]

BK經濟放送 朝取市場聽取

朝取에서는 京城放送局釜山分局에서 中繼키로 決定한午前、午後各五回의 大阪放送局의 經濟放送을 市場內에 聽取하야 客의 利便을 圖키로하얏다

今日財界(七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白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一斤	假在來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一圓[illegible] / 銀 一匁買 [illegible]

◆株 東新 [illegible] 鍾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大阪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 大阪棉花 [illegible] / 大阪人絹 [illegible] / 大阪砂糖 [illegible] / 고무現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二三	五六	五四、六五〇
東新	四四	五〇	八四、五六〇
大新	三〇	五〇	七八、一七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二十枚 ▲宇治電氣七二〇 ▲大同電力四二〇 ▲同新九一〇 ▲人造肥料新五六〇 ▲에라파이新[illegible] ▲[illegible] ▲滿洲工業一九六 ▲帝人一三〇 ▲日滿鑛業[illegible]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四、[illegible]
一同四分利	[illegible]
二同四分利	[illegible]
佛貨四分利	一八六、一〇

有勢한颱風 朝鮮을掩襲乎

中心示度 七百二十二粍에達하는 猛烈한颱風은 今朝 六時現在로 北緯二十九度 東經百二十八度 即 九州南西方 約二百키로海上에 進出하야 一時間 約二十三三키로로北北西로 進行하야 支那東海에 進出하려고하는 傾向인데 아즉 朝鮮은 中心距離가 進遠함으로 아즉 風雨가업스나 漸漸濟州島에 接近됨에 딸아 南朝鮮沿岸은 風勢가 激甚하야 處處에 暴風雨가 捲襲할것갓다 딸아서 朝鮮海峽도 漸風勢가 强하며 黃海以南도 漸 바람이 强하여질것갓다 이와가티 颱風은 北西로 進行하야 一端黃海에 躊躇하다가 다시 進路를 東北向으로 轉換하야 中部朝鮮을 掩襲할지라도 不知이라고 觀測所에서는 말한다 萬一 一般風進路의 轉換으로 三南地方의 被害가 不少한때에는 朝鮮의 稻作도 또한 平年作을 期待할수 업다고 市中商議이 區區

後場情報

後場은 日氣가 良好하고 日本內地는 去八月十五日現在의 調查가 平年作으로 되어잇스나 其後의 天候가 顯著히 不良하야 平年作의 可望이 업시되엿스며 端境期의 在米狀態로보면 朝鮮及日本內地를 不問하고 需給의不安은 勿論渡米의 調達이 難問임으로 結局그만한 行動이 업지안흘것갓다 그런데 當限戰은 아즉 納會期日이 遙遠할뿐아니라 賣方의 實物準備가 마치何如할지 물으는 마큼 三期中에 가장 伸惱狀態를 呈하고잇다 今後 果如何?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中東側 田中貞 地場 地場利喚 ▲買方馬越 地場株式側 小口側 來客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株式市場六感

株 米日爲替 二十九弗五仙으로 十二仙暴落、倫敦金塊暴騰이나 市況에는 無好感、綿糸續高도 無響 ▲開戰、平和를決한다던 聯盟理事會는흐지부지 今後形勢는 依然逆睹難▲이러다가는 不戰의 失望市勢가 먼저나오기 十常八九▲東新은 非投機時代이라 살맛이업고 日産은 百圓期待란 소리까지 나왓지만 八十圓도 벗지못하니 딱한노릇 ▲前月中旬頃의 그럴듯하던回復市勢에比하야 昨今은 寥寥한場面▲高價買의 整理順序?

▲東株不良 取引員處分問題는 今月末로 또延期하얏다고▲작구 延期하는것을보니 그內容이얼는 손대일수업도록 엉망진창인모양▲업친데 덥친다고 이저버렷던 取引所制度 改善問題가 가을바람과가티 또튀어나오면 東新十圓低落 이야잇슬듯

米 猛烈한颱風은 南西方에서 北北西로 進行하고잇다 將次이떠한 作戲를할모양인구▲아즉 朝鮮은 中心距離가 遙遠함으로 別影響이업을것가트나 濟州島를거처 黃海에나타나는때는 다시 東北으로 進路를轉換하야 三南으로 掩襲하기가 十常八九이라고 觀測所는 말하다▲果然 三南으로 掩襲하는때는 被害가不少할것이오 딸아서 朝鮮의平年作이라는 發表도 烏有에歸하지안흘는지 몰라▲颱風의影響으로 地方各地의 步調가 모다 躊躇하는것가트면서도 殆히 頑强▲그런데 阪地先限은 田中貞의 買前威力으로 由함인지 意外 伸惱狀態를呈하고 當地先限은 約三十丁이나 伸惱이엇든마큼 反撥▲그러고 中限은 阪仁兩地를里하야 모다 頑强하고 當限만는 比較的軟弱▲要하면 當限은 正米의市勢를前後하고잇는마큼 當分現象을維持하다가 正米의消勢如何를딸아 左右될 모양

各地正米

京城小堅 實物拂底와 期米高로 氣配十錢高唱인 丸仁三等三十一圓五十錢 雄町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illegible]

仁川强堅 休日을압두고 今朝도 取引이적어 閑散商狀이나 氣配十錢高인 丸仁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丁

釜山續高 必需側의 好價買付로 全般的으로 刺戟되엿다가 期米高를 보고 氣配가 更히 十錢續騰하나 角ㄱ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大邱上放 定期高로 當限에 探算繁賈가 만호나 現物로서의 賣物이 全無하야 氣配만二十錢 上放인 角ㄱ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三圓十錢

木浦反撥 實物薄으로 底意가 依然强하고 期米의 期近高를 보고 氣配二十錢反撥하야 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十四圓丁

群山堅調 産地는 厄日念慮와 拂下에人氣好轉으로 賣惜하고 期米高를 보고 氣配二十錢高인 [illegible]

代金引換販賣御用 文注方法 送料先方 京城 力德 電話本局3959 振替京城3384 京城府明治町 金.銀.白金

株 期 引取所員 當業者進呈 王 金在[illegible]商店 米 式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金融 七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米穀 七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株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七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치카고期麥 ◆鰯油沖價 ◆鰯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七日

◆新取短期 ◆算定代引日步 ◆東京現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氣配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七日

◆朝取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七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